



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303期(2026.08.14) WWW.MINGHUI.ORG

한글판 1067호 minghui.or.kr



▲ 7월 18일과 25일, 스위스 파룬궁수련자들은 스위스 수도 베른(Bern)과 최대 도시 취리히(Zurich) 도심에서 박해 반대 행사를 개최했다.

주요내용

【편집부】 제23회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모집 공지

【수련】 발정념을 많이 하는 것에 관한 약간의 체득

【수련】 예전의 어린이 대법제자를 일깨우는 것 역시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는 것

【평론】 중국 농민: 세계 공장의 대가, 중공의 무료 자산

〈목 차〉

■ 명혜편집부

제23회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모집 공지	3
-----------------------------	---

■ 해외종합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5
----------------------------	---

■ 중국소식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12
---------------------------------	----

■ 수련교류

발정념을 많이 하는 것에 관한 약간의 체득	16
휴대폰 보안 문제에 관한 몇 가지 현상	23
원망을 닦아버리고 진수하는 대법제자가 되다	26
대법의 인도를 받은 고등학생	32
예전의 어린이 대법제자를 일깨우는 것 역시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는 것	35
에어컨 배수관 누수가 준 깨우침	43
착실한 수련 속에서 마음이 비워지는 아름다움을 깨닫다	49
자아를 내려놓고 남을 위하는 마음을 닦아낸 체득	51
한 가지 문제를 토론해 보고자 한다	58

■ 시사평론

중국 농민: 세계 공장의 대가, 중공의 무료 자산	61
-----------------------------------	----

【편집자 주】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3회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모집 공지

[명혜망] 제23회 명혜망 중국법회 원고모집이 금일부터 시작된다. 중국 본토 수련자들이 적극적으로 투고해 함께 제고하길 바란다.

글의 요점이 명확하고 진실하며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수련 심득 교류 원고는 개인의 특정 수련 과정에서의 수확, 즉 각기 다른 층차에서 ‘진선인(眞·善·忍)’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성을 높이고 법리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 과정을 쓰는 데 중점을 둔다.

우리 수련자들이 겪는 모든 고뇌는 고비를 넘는 것이며, 매번의 갈등은 원만으로 향하는 계단이다. 세상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행한 모든 선행에는 깊은 역사적 연원이 담겨 있으며, 사부님께서 안배하신 길을 걸었는지 아니면 구세력의 안배에 빠졌는지의 문제가 존재한다. 모든 대법제자가 법 속에서 제고한 것은, 대법이 우리를 무신론과 현대 관념에서 건져내 각기 다른 층차의 새 우주의 각자(覺者)로 용련시킨 구체적인 실제 사례다.

사부님께서서는 우리의 수련 과정이 바로 관념이나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다. 현대 사회에 사는 우리는 착실히 수련하기만 하면, 이것이 현대 관념을 내려놓고 전통으로 회귀하며, 사람의 마음과 악념을 제거하고 불성(佛性)을 채우며, 세간에서 서약을 실현해 생명이 세상에 온 의미를 달성하는 과정임을 체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각 개인은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는가? 지난 1년, 5년, 법을 얻은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떤 상황에 부딪혔고 어떤 본질적인 변화가 있었는가? 부디 펜을 들어 당신의 그 답안지를 작성하길 바란다.

참가자: 중국 본토에 있는 대법제자, 투고 시 거주하는 성(省)을 명시할 것.

마감 시간: 2026년 9월 30일(수요일).

투고 플랫폼: <https://www.minghui.org/mh/contact-us.html>,
‘명혜망 원고모집/법회 투고’ 선택.

주의사항:

- (1) 미루거나 대충 넘기지 말고 최대한 일찍 글을 쓰기 바란다. 심득체험을 작성하는 과정 자체가 바로 수련 과정이며, 조용히 생각하고 결산하며 제고하는 데는 모두 시간이 필요하다. 아울러 법회가 순조롭게 개막할 수 있도록, 타이핑을 돕는 수련자와 편집 수련자도 그들의 업무량에 상응하는 수련을 완수할 시간이 필요하다.
- (2) 정념을 강화하고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 (3) 일상적인 일기 형식으로 쓰거나, 사건만 말하고 마음을 닦은 수확에 대해 논하지 않는 것을 피해야 한다.
- (4) 허위로 꾸며내거나 빈말, 큰소리, 상투적인 말 등 공산당 당문화(黨文化) 습관을 피하고, 과시심과 투쟁심 등 사심이나 사람의 마음이 섞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여러분이 원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를 기원한다! 법회가 모두의 공동 노력 아래 다시 한번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한다.

명혜 편집부

2026년 8월 7일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미국 파룬궁수련자들은 뉴저지 주립 박람회(New Jersey State Fair)에 부스를 마련하고 관람객들에게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는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것과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수련자들을 박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뉴저지주 북부에 위치한 이 박람회는 매년 20여만 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았다. 부드러운 연공 음악과 평화로운 공법 시연은 많은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어떤 이들은 발걸음을 늦추고 지켜봤고, 어떤 이들은 부스로 다가와 공법에 관해 물었으며, 수련자를 따라 동작을 배우는 사람들도 있었다.

8월 3일부터 9일까지, 뉴저지주의 또 다른 파룬궁수련자들은 이스트 브런즈윅시에서 열린 미들섹스 카운티 박람회(Middlesex County Fair)에 참가해 7일 연속으로 현지 시민들에게 파룬따파를 널리 알리고 진상을 전했다. 뉴저지주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인 저스틴 머피(Justin Murphy)와 뉴저지주 제12선거구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후보인 그레그 밀리(Gregg Mele)도 박람회 기간에 각각 파룬궁수련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파룬궁과 중공의 박해 진상을 알아보고 지지의 뜻을 표했다.

8월 4일 오후, 뉴욕 맨해튼 로어이스트사이드 거리에 텐트가 줄지어 세워진 가운데, 연례 커뮤니티 행사인 ‘전국 이웃의 밤’에 수많은 주민이 가족과 함께 참석했다. 파룬궁수련자들은 초청을 받아 행사에 참가해 파룬따파 다섯 가지 공법을 현장에서 시연하고, 태고(太鼓) 공연과 중국 전통 현악 연주를 선보였다. 우렁찬 북소리

에 발걸음을 멈추고 감상하는 시민이 많았으며, 많은 사람이 파룬궁 부스를 찾아와 파룬따파를 알아보고 진상 자료를 받았으며, 수련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진선인’이 가져다주는 평화와 아름다움을 느꼈다. 공법 시연이 끝난 후 진행자는 현장 관객들에게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8월 7일, 샌프란시스코 파룬궁수련자들은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영사관 앞에 모여 중공에 부당하게 납치된 창춘 파룬궁수련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박해를 종식할 것을 촉구했다. 2026년 7월 22일 현재, 이미 26명의 지린성 창춘시 파룬궁수련자가 중공에 납치됐다. 이날 중국 본토에서 온, 직접 박해를 겪었던 여러 파룬궁수련자가 중국영사관 앞에 모여 자신과 가족이 겪은 박해 경험을 이야기하며, 사회 각계에 여전히 중국 본토에서 박해받고 있는 파룬궁수련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인 스콧 실즈(Scott Shields)가 샌프란시스코 중국영사관 앞에서, 중공에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27년간의 박해를 즉각 중단하고 최근 창춘에서 납치된 파룬궁수련자, 특히 감금된 노인 수련자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선 이유는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라고 말했다.

7월 20일, 멕시코 파룬궁수련자들은 키타나로오주 툴룸시에서 진상 알리기 행사를 열어 시민들에게 많은 진상 자료를 배포하고 파룬따파 진선인 원칙을 소개했다. 많은 시민이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진상을 소개해 준 수련자들에게 감사를 표했고, 어떤 이들은 현지 연공장으로 가서 파룬따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케레타로주에서 파룬궁수련자들은 도심에 가서 파룬따파를 소개하고 중공의 박해 진상을 폭로했다. 많은 시민이 진상을 안 뒤

잇따라 지지를 표명했다.

7월 19일, 틀락스칼라주에서 온 파룬궁수련자들이 푸에블라시로 와서 현지 수련자들과 함께 역사 지구의 엘 카르멘 공원(El Carmen Park)에서 단체 연공을 하고 공법을 시연했다. 적지 않은 시민이 걸음을 멈추고 공법을 배웠다. 연공이 끝난 후 그들은 내면의 평온함을 느꼈다며 앞으로 계속 수련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 여성은 “이것이 바로 제가 계속 찾고 있던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녀는 “이것은 마치 하늘이 제게 주신 해답 같습니다. 저는 암에 걸린 지 3년이 됐는데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고 믿으며, 이 공법이 제게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8월 첫째 주말,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 레겐스부르크의 파룬궁수련자들은 시내 중심인 노이파르 광장에서 행사를 열고 현지 시민들에게 파룬따파를 소개하며 중공의 파룬궁 박해 진상을 알렸다. 세 명의 젊은이가 행사장을 지나갈 때 한 파룬궁수련자가 다가가 그들과 대화하며 파룬궁수련자들이 중국에서 겪고 있는 박해 상황을 알렸다. 처음에 이 세 사람은 그저 예의상 발걸음을 멈추고 들었으나, 대화가 깊어짐에 따라 그들은 자발적으로 질문하며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알고 싶어 했다. 떠나기 전 그중 한 명은 수련자에게 “오늘 이곳에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스위스 에글리 의원과 전 장크트갈렌주 의원 에바 켈러(Dr. Eva Keller) 박사는 스위스 수도 베른(Bern)과 최대 도시 취리히(Zurich) 도심에서 파룬궁수련자들이 개최한 행사에 각각 참석해 연설하며, 더 많은 사람이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박해를 알고 함께 박해를 저지하기를 희망했다. 에글리는 중공이 ‘진선인’을 신앙하는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하는 것은 단순히 국제 협약을 위반한 것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는 말했다. “박해는 어둠을 필요로 합니다. 침묵과 선전, 그리고 피해자를 비인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진상이 바로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모든 증언, 모든 보고서, 모든 독립적인 조사는 한 줄기 빛입니다. 빛에는 어둠을 몰아내면서도 스스로는 조금도 닳지 않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켈러 박사가 보기에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중공의 박해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독재 정권이 어느 한 집단을 박해하기 시작하면 이후 종종 다른 집단으로 번지곤 합니다. 이어서 그들은 또 다른 집단을 박해할 것입니다…… 결국 고통받는 것은 온 나라 민중입니다.” 비록 박해가 머나먼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그녀는 다음과 같이 여겼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서로는 사실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도 간접적으로 제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저 역시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8월 2일, 핀란드 파룬궁수련자들은 탐페레 헤멘푸이스토 공원에서 열린 연례 ‘공원 축제’ 행사에 참가했다. 파룬궁수련자들은 시민들에게 파룬따파를 소개하고 5장 공법을 시연하며 전단지 배포했다. 아울러 중공이 27년간 파룬궁을 지속적으로 박해하고 파룬궁수련자 등 양심수의 장기를 적출한 진상을 알렸다. IT 엔지니어 아누는 진상을 알아본 뒤 박해 반대를 지지하는 서명을 했다. 그녀는 말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슬프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서서 이 박해를 반대해야 합니다.” 수련자가 파룬따파는 ‘진선인’을 창도한다고 소개하자 그녀는 깊이 공감하며 말했다. “만약 모든 사람이 타인에게 친절하다면 전체 사회가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타인을 선하게 대하는 데는 어떤 대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련자가 그녀에게 연꽃을 선물하자 그녀는 찬찬히 살펴본 뒤 기뻐하며 말했다.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걸어야겠습니다.”

7월 19일, 슬로바키아 파룬궁수련자들은 수도 브라티슬라바의 흐비에즈도슬라프 광장에서 정보의 날 행사를 개최해 시민들에게 파룬궁 5장 공법을 시연하고 파룬궁을 소개했으며, 중국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박해를 알리고 박해 종식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았다. 슬로바키아 각지에서 온 약 20명의 파룬궁수련자가 이번 행사에 참가했다. 오후 4시, 수련자들은 촛불 추모 행사를 열어 중공의 박해로 사망한 파룬궁수련자들을 추모했다.

슬로바키아 국회의원회 의원 프란티셰크 미클로슈코와 전 국회의원회 의원 페테르 오수스키도 촛불 추모 행사에 참석했다. 국회의원회 의원인 프란티셰크 미클로슈코는 연설에서 경제적 이익이 인권 수호보다 우선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미클로슈코는 과거 체코슬로바키아 시절 공산주의 통치하에서 생활했던 자신의 경험을 회고하며, 국제사회의 지지가 그들에게 중요한 도움을 주었다고 강조했다.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들이 박해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간 국회의원을 역임한 페테르 오수스키는 이곳에 선량함을 지키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년 이 기념행사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정직한 사람은 약속을 하고 책임을 다해야 하며, 확고하게 선량함의 편에 서서 사악함에 맞서 결코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박해 속에서도 여전히 신앙을 굳게 지키는 모든 이들에게 지지를 표명했다. “만약 세계가 파룬궁이 보여주는 도덕관을 계속 외면한다면 더 나은 시대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미리암 렉스만 슬로바키아 유럽의회 의원도 특별히 서면 축하를 보내왔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저와 유럽의회 동료들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보편적 인권임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는 또한 파룬궁수련자를 포함한 양심수를 대상으로 중국에서 국가 주도로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강제 장기적출 보고에 대해 깊은 우려를 거듭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반드시 독립적인 조사를 받아야 하며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그녀는 또한 공산주의 통치하에서의 슬로바키아 역사적 경험에 대해 언급했다. “슬로바키아는 전체주의 통치를 겪은 바 있습니다. 아무리 가혹한 탄압도 자유, 진실, 존엄성에 대한 인류의 갈망을 영원히 억누를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오늘날 여전히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전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진리와 사랑이 결국 거짓과 증오를 이긴다는 것을 역사가 이미 증명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니트라시는 국제사회가 중국 파룬궁수련자들이 겪는 박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지지하기 위해 7월 20일 흐레노바 다리에 파란색 조명을 밝힌다고 발표했다. 니트라시는 공고문에서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유엔 등 국제기구들이 수년간 중국이 파룬궁수련자들을 상대로 자행한 임의 구금, 고문 및 기타 인권 침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기록해 왔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인도 몬순 기간이라 비바람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인도 여러 도시에서 온 파룬따파 수련자들이 모여 중공이 파룬궁에 대해 27년째 지속하고 있는 박해에 항의했다. 많은 행인이 발걸음을 멈추고 전시판을 관람했으며, 파룬따파와 파룬따파가 겪고 있는 박해를 알게 된 후 앞다투어 파룬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수련자들이 계속해서 평화적인 방식으로 사회에 박해 진상을 폭로 하도록 격려했다. 7월 20일, 파룬궁수련자들은 뭄바이 반드라 카터 로드에서 촛불 추모 행사를 열어 시민들에게 파룬따파와 파룬궁수련자가 중국에서 겪고 있는 중공의 27년째 지속된 박해에 대해 알아볼 것을 평화롭게 호소했다. 벵갈루루의 파룬궁수련자들은 넥서스 쇼핑몰에서 촛불 추모 행사를 열었다. 수련자들은 행인들에게 파룬따파 공법을 시연하고 청원서 서명을 모으며, 파룬궁수련자 및 기타 종교와 소수민족 단체를 상대로 자행하는 중공의 생체 장기적출 범죄를 종식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호소했다.

8월 6일은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81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121개 국가와 지역 및 유럽연합(EU) 대표, 일반 시민을 포함한 약 5만 명이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평화기념식에 참가했다. 현지 파룬궁수련자들은 원폭 돔 인근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해 중공이 파룬궁을 잔혹하게 박해하는 사실을 폭로하고, 중공의 파룬궁수련자 장기적출 만행을 공동으로 저지하며 박해를 종식하기 위해 실제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사람들에게 호소했다. 각국 주일 대사 및 각계 인사들이 파룬궁수련자들의 ‘G7+7 서한’ 서명운동에 서명하며 파룬궁수련자들의 박해 반대 활동을 지지했다. 아이작 레스는 독일에서 온 관광객으로, 그는 자료를 건네받고 장기적출 내용을 보자 극도로 경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가 이 박해에 대해 처음 듣는 것이 분명했으며, 그와 부모님 등 일가족 세 명은 주저하지 않고 이 박해를 종식하는 데 서명했다. 모모이는 서명할 때 파룬궁수련자들을 격려하며 말했다. “파룬궁수련자들이 계속 힘을 내어 중공에 굴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신께서 지켜보고 계시며, 신께서는 공정하고 공평합니다. 여러분은 정의로우니 부디 계속 견지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구이저우성 쑤이시 파룬궁수련자 류수링(劉淑玲)은 2021년 5월 25일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경찰에게 자택에서 납치됐다. 당시 70여 세였던 그녀는 부당하게 5년형을 선고받고 구이저우성 제1 여자감옥(양아이 감옥)에서 잔혹한 박해를 받아 결국 고문으로 마비됐다. 2026년 5월 26일 부당한 형기를 마치고 출옥했으나, 27일 후인 6월 23일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약 78세로). 중국공산당(중공)이 1999년 7월 박해를 발동한 후, 그녀는 베이징으로 청원하러 갔다가 현지 공안에게 쑤이로 납치돼 돌아온 후 부당하게 5년형을 선고받았고, 여성 파룬궁수련자들을 전문적으로 감금하고 박해하는 검은 소굴인 구이저우 양아이 노동개조농장에 투옥됐다. 5년의 부당한 옥고를 마친 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수련을 견지하며 시민들에게 진상을 알렸다.

구이저우 구이양시 바이원구의 77세 파룬궁수련자 왕홍편(王洪芬)은 2026년 5월 중순 갑자기 실종됐다. 6월, 사정을 아는 한 경찰은 왕홍편이 서명에 협조하지 않아 이미 그녀를 감옥에 감금한 지 한 달이 넘었다고 말했다.

왕홍편은 구이양시 바이원구 연산홍 주민센터 관할에 거주하며, 2011년부터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의 질병이 약을 쓰지 않고도 나아 그녀는 파룬따파에 비할 데 없이 감사해하며 항상 대법의 훌륭함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기를 바랐다. 2022년 2월 28일, 70세 파룬궁수련자 귀용평(郭永鳳)이 구이양시 관산후구에서 파룬궁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가 경찰에게 납치됐다. 3월 2일, 왕홍편은 취保候심(取保候審, 보석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는 조치)으로 귀가했다. 귀윙핑은 줄곧 구이양 찐장 구치소에 감금됐고, 나중에 중공 법원으로부터 부당하게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25년 9월, 왕홍편은 ‘3서(三書, 세 가지 수련 포기 각서)’ 서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구이양시 난밍구 법원으로부터 부당하게 3년형을 선고받고 감외집행 처분을 받았다.

산둥 칭다오시 67세 파룬궁수련자 옌징추(顏景秋)가 2026년 3월 14일 오후, 옌징추는 집 근처 구두 수선 노점에 가방을 수선하러 가던 중 칭다오 스난구 공안분국 국보 대대 경찰에게 납치됐다. 경찰은 그녀를 끌고 집으로 가 가택수색을 했고, 다수의 개인 물품을 강탈했다. 이어서 경찰은 테이프로 그녀의 두 손을 묶고 입을 막은 뒤, 스난구 공안분국 사건처리센터로 압송해 감금하고 심문했다. 7월 29일, 스난구 법원은 칭다오시 제1구치소에서 옌징추에 대해 불법 재판장을 열었다. 8월 6일, 가족은 그녀가 4년 6개월형을 불법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옌징추는 여러 차례 납치, 감금됐고 세 차례 불법적인 강제노동(한 번은 미수)과 두 차례 불법적인 판결을 받았으며, 감옥에서 고문을 당해 구사일생했다.

산둥성 짜오좡시 스중구 파룬궁수련자 장아이롄(張愛蓮)은 67~8세로 2025년 9월, 그녀는 스중구 칭탄로 바다 도매시장에서 파룬궁 진상 자료를 배포하던 중 경비원에게 CCTV 영상을 통해 발견돼 신고당했다. 경찰은 그녀의 집까지 미행했다. 이후 파출소 직원들이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그녀를 납치했다. 장아이롄은 스중구 웨러우 구치소에 감금됐다. 파출소 경찰은 여러 차례 집에 찾아와 남편을 협박했다. 남편은 본래 병이 위중해 돌봐줄 사람이 없는 데다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받아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한 달도 안 돼 집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후 장아이롄은 불법적으로 3년 남

짓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 여자감옥으로 보내져 계속 감금돼 박해받고 있다.

후베이성 징저우시 파룬궁수련자 류신안(劉新安)이 2026년 1월 19일 오전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던 중 악의적인 신고를 당해 징저우구 시먼 구치소에 구금됐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류신안은 3년 6개월 형을 부당하게 선고받고 우한 여자감옥에 갇혔다. 류신안은 이미 70세가 넘는 노인으로, 원래 징저우구 과학기술위원회 은퇴 회계사이자 공무원이었으며 1998년 4월부터 파룬따파 수련을 시작했다. 이전에 류신안은 2021년에도 1년 9개월 형을 부당하게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이번이 그녀의 두 번째 부당한 징역형이다.

랴오닝성 다롄시 파룬궁수련자 저우리주(周利柱)가 2026년 7월 24일경 다롄시 간징쯔구 법원으로부터 은밀하게 3년형을 부당하게 선고받았다. 1심과 2심 재판 모두 법원에서 그의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린 것이다. 8월 4일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해 저우리주를 접견하러 갔을 때에야 비밀리에 재판이 열렸고 이미 부당한 판결이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됐다.

랴오닝성 선양시 선베이신구 파룬궁수련자 뉴구이팡(牛桂芳)은 2025년 8월 27일, 집에서 후스타이진 파출소 경찰에게 폭력적으로 납치됐다. 이후 현지 경찰은 선양시 다둥구 검찰원 및 법원 직원들과 공모해 자료를 날조하고, 사법 절차를 밀실에서 조작해 그녀를 모함했다. 두 차례의 불법 재판을 거쳐, 최근 뉴구이팡이 1년 6개월형을 부당하게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뉴구이팡이 두 번째로 부당한 선고를 받은 것이다. 이전에 그녀는 선베이신구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3년형을 선고받고 랴오닝성 여자감옥 마싼자 감구에서 잔혹한 박해를 받았다.

지린성 지린시 88세 파룬궁수련자 평평원(馮鳳雲)은 2026년 7월 30일, 지린시 평만구 국보 대대 장(蔣) 대장, 위(于) 대장 및 경찰 류밍양(劉明陽) 등 3명이 집에 난입해, 병원에 신체검사를 하러 데려가겠다고 120 구급차를 불러 평평원을 지린시 제3병원 분원으로 보냈다. 병원에서도 피 한 통만 뽑은 뒤, 경찰은 즉시 그녀를 지린시 구치소로 보내 감금했다. 다음 날 11시경, 구치소는 가족에게 전화로 “평평원은 이미 지린성 신강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라고 통보했다. 평평원은 여러 차례 부당하게 감금됐고, 창춘 헤이쭈이쯔 여자 노동수용소에서 정신적 괴롭힘과 고된 노역을 당해 신체가 심각하게 손상됐다. 2022년 1월 22일 오후 3시경, 지린시 가오신구 국보와 가오신 파출소 소속 경찰 6명이 리원전의 집에 난입해 평평원을 납치했다. 평평원은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구치소에서 수감을 거부당해, 24일 저녁 6시 5천 위안의 보석금을 내고 귀가했다. 2023년 6월 하순, 평평원은 지린시 창이구 법원에서 부당한 재판판을 받았고 그후 부당하게 4년형을 선고받았다.

텐진 지(薊)현 파룬궁수련자 쑤수화(孫淑華)는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에 따라 자신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중공 경찰의 괴롭힘을 당했고, 두 차례 부당한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갇혀 박해를 받아(첫 번째 3년 6개월형, 두 번째 1년 6개월형) 심신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그녀는 2026년 1월 출옥한 후 혈압이 200이 넘게 지속되다가 7월 6일 고혈압성 뇌출혈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향년 61세였다. 그녀의 언니 쑤수전(孫淑貞)은 지현 인류진 우리즈 왕존에 살았는데, 마찬가지로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 불법적인 선고를 받았다. 2009년에 3년형, 2017년에 불법적으로 5년형을 선고받아 심신에 큰 상처를 입었고, 2023년 5월 28일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향년 62세였다.

발정념을 많이 하는 것에 관한 약간의 체득

글/ 중국 대법제자 정련(淨蓮)

[명혜망] 최근 발정념을 중시하는 내용이 담긴 일부 수련생들의 체득을 보고, 나 역시 지난 몇 년간 발정념을 하며 얻은 체득을 적어 수련생들과 교류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주변의 많은 수련생이 발정념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아, 사부님께서 베풀어 주신神通(神通)을 수시로 운용해 사악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그로 인해 일부 수련생은 장기간 병업(病業) 고비에 처해 벗어나지 못하거나 혹하면 사악의 교란을 받아 떨쳐내지 못한다. 또는 가정 고비를 넘기기 어려워 가족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상당수가 발정념을 중시하지 않아 초래된 것이다.

1. 매 정시 발정념을 꾸준히 해 가정이 평온을 되찾다

먼저 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려 한다. 나는 예전에 사악에게 강제노동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당시 현지 사악에게 1년에 몇 차례씩 자주 교란을 받았는데, 때로는 상황이 아주 심각했다. 그들은 가족까지 위협하고 공갈하며 내가 중점 인물이니 보증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며 마치 총살이라도 할 것처럼 굴었다. 이 때문에 가족들도 내게 아주 큰 압박을 가했다. 매번 사악이 교란하고 나면 가족들이 매일같이 다뤄 집안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그 몇 년은 정말 너무나 힘들었다. 이후 한 수련생의 교류를 보았는데, 그녀는 매일 매 정시마다 꾸준히 발정념을

했다고 한다. 즉 매시간 정각이 되면 발정념을 했고, 밤에 잘 때도 정시에 일어나 발정념을 하기 위해 이불에 기댄 채 잤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교란받는 상황이 거의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이를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고 사악을 제거하려는 수련생의 확고한 의지에 감동해 나도 발정념을 중시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직장인이라 평소에 발정념을 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래서 주말 이틀 동안 아침 9시부터 매시간 정각마다 15분씩 발정념을 해 밤 9시까지 계속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꾸준히 해나가기 어려워 각종 교란이 나타났지만, 나는 굽히지 않고 계속 발정념을 했다. 내가 이렇게 하기 시작한 이후, 최근 몇 년 동안은 기본적으로 더 이상 교란을 받지 않았다. 게다가 가족의 변화도 아주 커서 진상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고, 중공 악당의 사악함도 똑똑히 인식해 더는 사악에게 조종당해 나를 교란하지 않았다. 우리집도 마침내 평온을 되찾았고 나도 더욱 안정적으로 법을 실증하는 일을 잘할 수 있게 됐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계속 노력하라! 인류의 역사는 사람이 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인류의 역사는 또 사악이 날뛰는 낙원을 마련해 준 것이 아니다. 인류의 역사는 정법을 위해 세워진 것이며 대법제자들이야말로 비로소 여기에서 휘황함을 펼칠 자격이 있는 것이다.”(정진요지 3-2005년 유럽법회에 즈음하여)

2. 외출 시에도 꾸준히 발정념을 많이 하다

이 밖에도 나는 매일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출퇴근할 때마다 발정념을 해, 중생의 머릿속에 사악이 주입한 독소를 해체하고 그

들 배후에 있는 공산사령(共産邪靈)의 모든 요소를 해체했다. 젊은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보면 그들의 휴대폰 배후에 있는 일체 사악을 제거하려 했다. 평소 고속철도나 비행기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출장을 가서 호텔에 머물 때도 발정념을 비교적 중시했다.

예전에 불법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도시로 처음 출장을 갔을 때가 기억난다. 호텔에 체크인 수속을 하려 준비할 무렵, 한 순간 하늘에 먹구름이 뻘뻘하게 끼더니 미친 듯이 거센 바람이 불었다. 나는 강대한 정념을 발해 다른 공간에서 교란하고 박해하는 일체 사악한 요소를 해체하는 동시에 사부님께 도움을 청하며, 제자는 절대 구세력이 안배한 길을 가지 않을 것이며 결코 중생이 대법에 죄를 짓게 두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내 차례가 돼 수속을 밟을 때 갑자기 다른 직원으로 바뀌었는데,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아주 신속하게 수속을 마쳐주었고 나는 순조롭게 호텔에 묵게 됐다. 출장을 마치고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갔을 때도 나는 다시 한번 강대한 정념을 발해 사악이 무고한 세인을 조종하고 이용해 대법에 죄를 짓고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데 가담하지 못하게 했다. 보안 검색을 준비할 때 사장이 내게 자신과 함께 귀빈 통로로 가자고 했다. 나는 줄곧 발정념을 하며 다른 공간에서 교란하고 박해하는 일체 사악한 요소를 해체했고 직원들의 머릿속에 주입된 독소를 제거했다. 내가 신분증을 직원에게 건네자 그 직원은 나를 엄숙하게 쳐다보았는데, 내가 평온하게 미소를 지어주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금세 수속을 끝내주었다. 나는 무사히 보안 검색을 통과했다. 사부님의 가지에 감사드린다! 이후 수많은 출장과 여행에서도 나는 늘 이렇게 넘겨왔고 매번 아주 순조로웠

다.

사부님께서서는 줄곧 우리를 보살펴주시고 보호해주신다. 우리가 정념정행(正念正行)하기만 하면 넘지 못할 고비는 없다. 구세력이 연화해 낸 박해 형세는 모두 가상이니, 오로지 우리 자신이 정념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하지만 절대 한번 시험해 보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는 애초에 사부님을 믿지 않고 법을 믿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며칠 전 한 수련생이 본 시에서 고속철도를 탈 때 바로 이런 마음이었다고 한다. 혹시 저지당하지는 않을까 시험해 보려 했는데, 개찰구를 통과하며 신분증을 찍자 대형 스크린에 그녀의 이름이 떠올랐고 직원에게 불려가 심문을 받았다. 그 이후로 그녀는 두 번 다시 고속철도를 타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구세력의 박해를 승인한 것이 아니겠는가? 예전에 주민센터 직원이 가족을 교란할 때, 내가 전향하지 않으면 비행기나 고속철도를 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당시 가족은 그들에게 내가 방금 외지에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다며, 못 탄다는 말은 없었다고 당당하게 대꾸했다. 이는 가족의 태도 역시 우리의 수련 상태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그리고 평소 발정념을 할 때 한 가지 생각을 덧붙였다. ‘모든 사악한 시스템 내에서 대법제자를 박해하려고 획책한 검은 자료, 검은 증거, 검은 기호, 검은 표식 등을 남김없이 제거하고 지워버려, 사악이 이것들을 이용해 세인으로 하여금 대법에 죄를 짓게 두지 않는다’라는 일념이다. 동시에 사악이 설치한 모든 도청, 모니터링, 감시 장비와 인터넷 감시, 차단, 검열 장비가 대법제자에게 전혀 작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나는 이 장비들과 소통했다. ‘너희는 모두 법 속의 생명이고 모두 법을 위해 온 것이며 모두 대

법의 제도를 받기 바라고 있다. 조건 없이 ‘진선인(眞·善·忍)’ 우주 특성에 동화하기 바란다.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기억해라. 절대 사악을 도와 악행을 저지르지 말고, 절대 사악에게 이용당해 대법과 대법제자를 박해하지 마라. 대법의 편에 서면 너희는 아름다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사부님께서 이 공간에서는 오직 사람만 미혹돼 있을 뿐 다른 생명들은 미혹돼 있지 않다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가 이처럼 발정념을 해 중생과 소통할 때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 중생은 바른 편에 서기를 선택할 것이다. 한번은 비행기를 타려고 보안 검색을 통과할 때였는데, 당시 기계로 자동 스캔을 하고 있었다. 내 앞에 있던 한 소년의 신분증이 아무리 오래 찍어도 인식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발정념을 해 기계와 소통했다. ‘기계야, 기계야, 너 역시 법 속의 생명이니 ‘파룬따파하오’를 기억하고 대법제자를 도와다오. 절대 부정적인 작용을 일으키지 마라.’ 이렇게 생각한 뒤 내가 신분증을 스캐너에 올려놓자마자 통로 문이 열렸다. 1초도 걸리지 않았으니 정말 너무나 신기했다.

3. 발정념으로 본 지역의 사악을 해체하다

최근 명혜망 보도를 보았는데, 상반기에 본 지역에서 또 수련생 두 명이 사악의 장기간 고압적인 박해 속에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참으로 뼈아픈 손실이다. 수련생이 지난 몇 년간 아주 심각하게 박해받은 경험을 자세히 살펴보고서, 정법시기 대법제자로서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는 것을 깊이 느꼈다. 수련생을 박해한 중생은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것인가.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 대법제자에 대한 흑수, 난귀와 구세

력의 박해를 철저히 제거하기 위하여, 전 세계 대법제자들 특히 중국 대륙 각 지역의 대법제자들은 이런 사악한 곳을 향해 집중적으로 강대한 정념을 내보내어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일체 사악한 생명과 요소를 철저히 해체하고, 중국 대륙에서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사악한 형세를 깨끗이 제거해야 하며, 세인을 구도하고 대법제자의 책임을 원만히 하여 신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정진요지 3-사악을 철저히 해체하자)

20년이 지났건만 현재 중국의 사악한 검은 소굴에는 여전히 대법제자에 대한 심각한 박해가 존재하고 있다. 나는 우리가 사부님의 요구를 해내지 못했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 주변 수련생들의 모습을 보면, 현재 수련생들은 네 차례의 매 정시에 발정념을 하는 것 외에는 기본적으로 다른 시간엔 발정념을 하지 않으며, 매일 저녁 8시와 9시 발정념마저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본 지역의 사악, 특히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사악한 검은 소굴 내의 사악을 겨냥해 수련생들이 따로 시간을 안배하여 집중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면 감금돼 박해받는 수련생들이 어떻게 밖에 있는 수련생들의 가지(加持)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가.

또 예전에 한 수련생이 베이징이라는 이 사악한 소굴의 사악을 제거하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고 교류한 내용을 보았다. 이 수련생은 천목(天目)으로 수많은 사악이 베이징에서 사악한 통로를 거쳐 전국 각지로 이송돼 각지에 박해를 유발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나는 확실히 이를 중시해야 한다고 느꼈다. 수많은 사악의 박해 지시는 실로 위에서 아래로, 베이징이라는 이 사악한 소굴에서 발령되고 있다. 그래서 나도 평소에 베이징이라는 이 사악한

소굴의 사악을 제거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으며, 사악을 이송하는 모든 통로를 제거하고 해체하며 폭파하고 있다.

4. 악인이 남을 볼 면목이 없게 만들다

나는 대개 발정념을 할 때 대법과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악인이 응보를 받아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한다는 점을 떠올릴 때면 사부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좋은 사람 무지막지하게 박해하네”(홍음 3-신세를 망치다) 대법과 대법제자 박해에 가담한 자들이 남을 볼 면목이 없게 만들면, 악인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종식시키는데 아주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악인은 응보를 받고도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악인은 자신의 몸이 아주 안 좋아졌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이 박해에 가담해서 생긴 일이라고는 연관 짓지 못했다. 만약 그 악인이 받은 응보가 남을 볼 면목이 없게 만드는 것이라면, 가령 입이 돌아가고 눈이 비뚤어지는 등이라면 이런 악인들은 자신이 정말 응보를 받았다고 느껴 악행을 거두게 될 것이다. 주변 사람들도 그들이 필시 나쁜 짓을 해서 응보를 받았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채고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게다가 정부 부처에서는 공무원의 개인적인 이미지를 아주 중시하므로, 만약 입이 돌아가고 눈이 비뚤어져 남을 볼 면목이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기본적으로 더 이상 정상적인 업무를 할 방법이 없게 돼, 결국 악인은 더 이상 악행을 이어갈 수 없게 된다. 우리가 발정념을 해 죄가 아주 큰 악인이 응보를 받게 할 때, 그들의 입이 돌아가고 눈이 비뚤어져 남을 볼 면목이 없게 함으로써 즉시 악행을 멈추게 한다는 일념을 더하면 어떨까 싶다.

정법시기 대법제자로서 우리는 사부님께서 베풀어 주신 위력이

비할 데 없는 발정념 구결을 얻었으니, 마땅히 공능(神通)을 충분히 운용해 일을 하고 중생구도를 해야 한다. 진정으로 사부님을 도와 정법(正法)하는 작용을 발휘해 사존의 기대와 중생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은 개인의 현재 약간의 인식일 뿐이니,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께서 자비롭게 지적해주시기 바란다.

휴대폰 보안 문제에 관한 몇 가지 현상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휴대폰 보안에 관해서는 명혜망에서 여러 차례 언급됐고 전문 자료집까지 있을 정도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명혜망에는 휴대폰 보안 관련 글이 수시로 실리고 있다. 이는 휴대폰 보안에 있어서 대법제자들에게 여전히 문제가 존재함을 설명한다. 나 역시 이에 대해 깊이 느끼는 바가 있다. 하나는 명혜망에서 많은 수련생이 간곡하게 타이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방면에서 수련생들이 끊임없이 앞을 다투며 여러 번 권고해도 고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본 몇 가지 현상을 말해보려 한다.

첫째, 선택적으로 중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아마 모든 수련생이 휴대폰의 위험성을 알고 있을 것이며 그것이 도청기라는 사실도 명확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일부 수련생은 호감 가는 수련생과 함께 있을 때는 휴대폰 보안을 매우 중시해 미리 완벽하게 휴대폰을 격리해 사악이 절대 감청할 수 없는 위치에 둔다. 하지만 자신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수련생에 대해서는 휴대폰 처리에 있

어 완전히 상반된 행동을 보인다.

둘째, 시늉만 내는 것이다. 시늉만 낸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역시 휴대폰 보안 문제를 알고는 있지만 써야 하고 혹시라도 누가 전화를 하거나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어떡하냐는 것이다. 그래서 휴대폰을 챙겨야 하고 대화할 때는 한쪽에 치워둔다. 이 ‘한쪽에 치워둔다’는 것은 팔 하나 닿을 거리일 수도 있고 다른 방일 수도 있다. 다들 알다시피 요즘 건물은 방음 효과가 매우 떨어져 대부분 골조 구조라 같은 집 안은 말할 것도 없고 위아래 층 사이에서도 소리가 들릴 정도다. 솔직히 말해 이런 방식은 자신을 속이는 짓이다. 당신은 괜찮다, 안 들릴 거라 생각하겠지만 사악은 등 뒤에서 당신을 비웃고 있을지 모른다. 사악의 비웃음은 고사하고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 비웃을 것이다.

셋째, 매우 반감을 품는 것이다. 이런 상황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휴대폰 보안을 언급하기만 하면 특별히 반감을 품고 심지어 정반대로 행동한다. 당신이 법공부 팀에 가져가면 안 된다고 하면 나는 가져가겠다는 식이다.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다. 어떤 수련생이 다른 수련생의 권유로 법공부 팀을 만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휴대폰을 가지고 와서 법공부를 하는 현상을 발견했다. 그 수련생은 박해를 받은 적이 있어서 법공부 팀을 꾸린 것 자체가 부담이었다. 그래서 그 수련생은 휴대폰을 가져오지 말라고 명확히 제안하며 그렇지 않으려면 오지 말라고 했다. 당시 이견이 있긴 했지만 모두 동의했다. 그 수련생도 모두가 다시는 가져오지 않을 거라 여겼다. 결과적으로 한번은 법공부 중에 한 수련생의 가방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그 수련생이 다시 엄숙하게 경고했는데 근절됐을까? 여전히 아니었다. 어떤 수련생은 은근히 오기

를 부리며 자신의 구형 휴대폰을 가져왔다. 결국 이 팀은 어쩔 수 없이 해산됐다.

넷째, 공능(功能)을 운용하는 것이다. 공능은 다른 공간에 나타나는 것인데 과연 작용을 일으켰을까? 무엇을 측정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설마 유일한 표준 답안이 있단 말인가? ‘서유기’를 보면 다 알 수 있듯이 손오공은 신통력이 막강해 공능이 열린 채 수련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각기 다른 상황에서 사용한 공능은 어떤 때는 작용을 일으켰고 어떤 때는 작용하지 않았다. 심지어 자신마저 요괴에게 제압당해 그의 공능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리기도 했다. 천병천장(天兵天將)과 각지의 신선들도 도와주지 못해 시간과 힘만 소모했다. 개인적으로 ‘공능을 운용한다’는 방법도 이와 비슷하다고 본다. 관건은 손오공이 제압당했을 때는 도와주는 신선들이라도 그렇게 많았지만 수련생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가 도와주는가이다. 만약 이런 방법으로 정말 전화 감청을 근절할 수 있고 실명 신분증으로 개통한 실명 휴대폰 번호와 실명으로 가입한 모든 앱을 사용하는 상황에서도 사악의 감시와 박해를 억제할 수 있다면 꺼내어 공유해도 좋을 것이다.

더욱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도 있다. 어떤 수련생은 휴대폰이 감청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수련생과 대면해서 직접 말할 수 있는 민감한 주제를 굳이 전화로 말하려 하는데 이는 심성 문제일 것이다.

이상은 휴대폰 보안을 중시하지 않는 몇 가지 표현이다. 또 휴대폰 보안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서는 생략하겠다.

사악의 박해는 멈추지 않았고 그것들의 박해 기술 역시 새로워

지고 있다. 이 박해는 사람 대 사람의 박해가 아니라 모두 다른 공간 생명의 참여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들의 기술 갱신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특히 대법제자가 비교적 많은 일부 도시에서는 오랫동안 별일이 없자 느슨해졌다. 당신이 느슨해졌어도 사악은 절대 느슨해지지 않았다. 사악은 대법제자 한 명을 박해하기 위해 그토록 인내심을 갖고 호시탐탐 노리며 한시도 늦추지 않는데 왜 대법제자는 자신의 수련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인내심을 갖지 못하는 것인가? 어찌 자신의 수련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가? 어찌 타인에 대해 책임을 지지 못하는가?

대법 안의 모든 일은 연관된 것치고 작은 일이 없다. 사실 휴대폰 보안은 그리 해내기 어려운 일이 아니며 조금만 마음을 쓰면 된다.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원망을 닦아버리고 진수하는 대법제자가 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몇 년 전 내가 박해를 받았을 때, 남편이 집에서 하던 사업이 망해 경제적으로 궁핍했다. 내가 법공부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마음이 몹시 괴로웠고, 늘 이 고비를 넘지 못한 채 마음속으로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다. 그가 큰 빚을 진 것을 원망했고, 부지런하지 않은 것을 원망했으며, 일자리는 찾지 않고 마작만 하는 것을 원망했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무책임한 것을 원망했다. 남편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올라 가슴이 답답했다.

1. 안으로 찾아 갈등이 사라지다

어느 날 저녁 무렵, 나는 밥을 하던 중에 그가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통명스럽게 말했다. “빨리 국수나 건져요.” 그는 내 굳은 얼굴을 보더니 말했다. “좀 좋게 말할 수 없어?” 나는 화를 내며 말했다. “나는 원래 이렇게 말해요.” 그도 통명스럽게 말했다. “나 안 먹어, 됐어?” 말을 마치고는 씩씩거리며 나가 버렸다.

그가 가버리자 나도 어안이 병병해졌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수련인인가? 어떻게 남과 늘 이렇게 지낼 수 있단 말인가? 그저 돈 좀 잃은 것뿐이지 않은가? 사부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 돼 누구에게나 잘 대하라고 하셨는데, 그가 돈을 잃었다고 해서 내가 그를 이렇게 대한다면 내가 좋은 사람인가? 살기 힘든 것이 바로 고생을 겪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야말로 명예, 이익, 정을 내려놓을 좋은 기회가 아닌가?’ 법에 비추어 보니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법으로 자신을 바로잡고, 사부님 말씀을 들어 누구에게나 잘 대하며, 곳곳에서 남을 배려해야 했다. 사부님의 법이 내 마음의 매듭을 풀어주셨고 내 마음은 편안해졌다.

나는 마음을 잘 가다듬고 남편을 찾으러 갔다. 이웃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가 거기에 앉아 있길래, 나는 웃으며 말했다. “밥 다 됐어요. 집에 가서 밥 먹어요.” 이웃 사람이 말했다. “아직 밥 안 먹었어요? 난 당신들이 먹은 줄 알았는데.” 내가 말했다. “나는 방금 남은 국수를 먹었고, 남편한테는 새로 국수를 삶아 줬어요.” 방 안의 이웃 몇 명이 웃으며 이야기했고, 남편도 내가 웃으며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는 것을 보더니 기분 좋게 말했다. “집에 가서 먹어야지.”

이렇게 우리 둘은 웃고 떠들며 집으로 돌아왔고, 방금 일어난 일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됐다. 폭발할 것만 같았던 이 갈등은 이렇게 내가 안으로 찾는 상황 속에서 평온하게 가라앉았다. 안으로 찾는 것은 정말 좋고, 그 효과도 즉각적이었다.

2. 원망심을 닦아버리다

남편은 가부장적인 데다 정식 직업도 없고 마작을 좋아해서 집 안일은 거의 다 내가 맡았다. 법공부를 잘할 때면 상태가 좋아서, 나는 사부님의 법으로 자신을 지도하며 그와 따지지 않고 참을 수 있었다. 상태가 좋지 않을 때면 자신에게 엄격하게 요구하지 못해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를 원망했다. 나의 이 원망심은 수시로 계속 밖으로 튀어나와 늘 제거되지 않았다.

한번은 내가 그에 대한 원망심 때문에 다리가 아파 걸을 때마다 절뚝거렸던 기억이 난다. 사촌 여동생이 그것을 보고는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다. 나는 말했다. “괜찮아. 형부가 일은 안 하고 마작만 하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원망이 생겨서 다리가 아픈 거야. 법공부를 잘하고 나 자신을 잘 가다듬어서 그에 대한 원망을 없애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나는 그에 대한 원망심을 반복적으로 제거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리가 다 나았다.

또 가장 뻗속 깊이 새겨진 일이 있었다. 그것은 2021년 가을이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계속 내리는 바람에 우리집 지붕 몇 군데에서 비가 섰다. 빗물이 스며들어 벽에서 시멘트 가루가 떨어졌고 바닥, 책상, 침대 위가 온통 가루투성이가 돼 아주 짜증스러웠다. 비가 그친 후, 나는 하루를 꼬박 들여 두 방을 철저히 청소했다. 남편은 내가 청소하는 것을 보고도 묻지도 않고 돕지도

않은 채 평소처럼 마작을 하러 갔고, 밥 먹을 때가 되어서야 밥을 먹으러 돌아왔다.

나 같은 여자가 이리저리 옮기고, 쏘고, 닭느라 녹초가 됐는데도 그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니, 내 마음속의 억울함과 원망은 말할 것도 없었다. 밤 12시가 다 될 때까지 바쁘게 움직이다가 나는 서둘러 앉아 정념을 발했고, 정념을 다 발하고 나서야 침대에 누워 쉬었다.

막 이불 속에 누워 발로 이불을 걷어차는데, 갑자기 왼쪽 다리에 쥐가 났다. 너무 아파서 즉시 일어나 주무르고 비비고 두드려도 가라앉지 않았다. 나는 다시 서둘러 침대에서 내려와 발을 구르고 다리를 뻗으며 두드려봤지만 여전히 소용없었다. 참기 힘들 정도로 아팠지만 아무런 방법도 없었다. 바로 이때, 나는 갑자기 또 어지럽고 메스꺼우며 토하고 싶어졌다. 몇 번 헛구역질을 했지만 토해내지 못했고, 이때 배도 매우 불편해져서 설사를 할 것 같았다. 나는 얼른 화장실로 가서 변기에 앉았는데 심한 고통이 몰려왔다.

나는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연공인이지 않은가!’ 나는 서둘러 안으로 찾았다. 평소에는 일해도 그다지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오늘은 일하면서 너무너무 피곤했고 기분도 좋지 않았다. ‘내가 왜 이러지?’ 나는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물었고, 갑자기 깨달았다. 내 마음속에 원망이 있었고, 불공평함을 느꼈으며, 남편이 도와주지 않는 것을 원망하면서 계속 불평했던 것이다. 바로 원망심이 장난을 친 것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서둘러 사부님께 잘못을 인정했다. ‘사부님,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남편을 원망해서 화를 불렀습니다. 저는 이 원망심을 원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제가 아닙니다. 이번 교훈을 받아들이고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략 15분쯤 뒤에 내 몸은 아주 빨리 정상으로 회복됐다. 나는 계속 사부님께 감사드렸고 사부님의 은혜에 감사드렸다.

수련은 너무나도 신기하고 안으로 찾는 것은 너무나도 신묘한데, 이것이 바로 대법의 위력이고 사부님의 위덕이다. 수련은 정말 좋고 사부님이 계셔서 정말 좋다. 나는 깨달았다. 사부님께서 시시각각 제자들을 보살피 주고 계시며, 내가 늘 깨닫지 못하자 정성껏 시련을 안배해 제자를 일깨워 주시고 내가 남편에 대한 원망심을 버리고 제고해 올라오게 하신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감격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사부님의 고심 어린 안배에 감사드리고 사부님께서 내내 보호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3. 작은 선행으로 대법을 실증하다

작년 봄, 나는 장에 쌀을 사러 갔다. 쌀을 파는 노점상 앞에 가서 가격을 물어본 뒤 100위안어치 쌀을 사기로 했다. 노점상은 아주 기뻐하며 내게 봉투를 하나 건네주었다. 그가 봉투에 쌀을 붓다가 그만 실수로 바닥에 쏟고 말았다. 노점상은 그 광경을 보더니 금세 안색이 변하며 중얼거렸다. “손해 봤네, 손해 봤어.” 나는 그것을 보고 얼른 말했다. “땅에 떨어진 쌀도 제가 살게요. 소규모 장사하시는데 쉽지 않으시잖아요. 땅에 닿지 않은 쌀은 쌀 포대에 담고, 땅에 닿은 쌀은 작은 비닐봉지에 따로 담아 섞이지 않게 해주세요. 밥 해 먹을 때 물로 깨끗이 씻으면 되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손해 보지 않으실 거예요.” 그는 즉시 기뻐하며 말했다. “좋습니다, 좋아요.”

내가 말했다. “저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합니다. 사부님께서는 저희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 곳곳에서 남을 배려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만약 다른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 쌀을 안 사려고 했을 거예요.” 노점상은 감격하며 말했다. “맞아요, 맞습니다.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그는 연거푸 두 번 말했다. 내가 말했다. “파룬궁에 대해 아시나요?” 그가 말했다. “우리 마을에도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아주 좋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물었다. “중국공산당(중공) 조직에 가입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는 아무 데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대법의 기본 진상을 알려주고,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쩌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우라고 말해주었다. 진심으로 외우면 복을 받는다고 하자 그는 기쁘게 알겠다고 했다.

작은 선행 하나가 한 생명에게 대법의 훌륭함을 보게 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갖게 해주었으니 나 또한 매우 흐뭇했다.

맺음말

법정인간(法正人間)이 눈앞에 다가온 지금, 사부님께서는 줄곧 우리가 수련해 성숙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사부님의 거대한 대가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바꾸어 오셨다. 나는 이 만고의 기회, 성스러운 인연을 더욱 소중히 여길 것이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착실하게 안으로 찾고 안으로 닦으려 한다. 자신을 잘 닦고 세 가지 일을 잘해 합격된 대법제자가 됨으로써, 사부님께 기쁨을 더해드리고 노고를 덜어드릴 것이다.

대법의 인도를 받은 고등학생

글/ 중국 청소년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고등학생으로 어릴 때부터 어머니, 외할머니와 함께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자비로우신 사존께서는 줄곧 제 곁에 계셨습니다. 생활 속에서도 대법을 기준으로 삼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대법제자이기에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대법의 불은(佛恩)을 입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제 몸은 유난히 건강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유치원은 바이러스가 가장 쉽게 퍼지는 곳이라 아이들이 수시로 돌아가며 결석하곤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출석부를 받아보니 저는 3년 동안 딱 한 번만 결석했는데 그날마저도 태풍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또래 중에서 가장 건강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복잡하고 자질구레한 일들로 골머리를 앓으며 밤에 잠들기 힘들어할 때도 저는 안으로 찾고 심성을 제고하는 방식을 통해 매일매일의 번잡한 일들을 내려놓고 금방 잠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도덕이 전반적으로 타락해 학교도 결코 순수한 곳이 아니며 교실에서도 수시로 거친 말이 들려옵니다. 반에서 원래 욕을 안 하던 친구들마저 이런 나쁜 습관에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욕을 한 적이 없어 친구들의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한번은 받아쓰기 시험이 있었는데 어찌 된 일인지 한 친구가 옆 반에서 답안을 구해와 반 친구들 거의 모두가 우르르 몰려가

서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진(眞)’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비록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시험 일 뿐이라 해도 저는 반드시 제 노력으로 가장 진실한 성적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도 스스로를 엄격히 다잡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휴대폰만 손에 넣으면 당장 동영상이나 게임을 켜고 헤어 나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게 전자기기는 그저 도구일 뿐이라 다 쓰면 그만두고 어떨 때는 심지어 아예 쓰기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가끔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할 때도 있어서 그럴 때는 제가 먼저 어머니께 전자기기에 비밀번호를 걸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반 친구들도 저를 ‘가장 순결한 아이’라 부르며 제가 그들의 평균 수준을 높여줬다며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이 칭찬이든 농담이든 저는 대법의 요구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고 바른 기풍을 굳게 지키며 이른바 친구들과 ‘어울린다’는 핑계로 맹목적으로 휩쓸리지 않으려 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존께서 내내 일깨워 주시고 보호해 주신 덕분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점이 몇 가지 신기한 일들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처음 밖에서 혼자 공유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갈 때 마음이 조금 불안했습니다. 꽤 큰 교차로에 다다랐을 때 멀리서 보니 앞쪽 신호등 표시가 좀 아리송해서 지금 길을 건너도 되는지 순간적으로 헷갈렸습니다. 길에는 크고 작은 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어서 자칫 잘못 건너면 꽤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침 옆에 있던 한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제 앞으로 와서 길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할아버지 뒤를 따라

그 복잡한 교차로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마침 그 할아버지와 가는 길이 같아서 저는 계속 할아버지를 따라갔고 마음이 무척 든든했습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마지막 길목에 도착했을 때 그 할아버지는 다른 길로 타고 가셨고 저는 무사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봐도 참 신기하며 사부님께서 저를 이끌어 집에 데려다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업 면에서도 한동안 순탄치 않은 과정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학업 스트레스가 아주 심해서 주말이면 거의 모든 친구가 학원에 갑니다. 적어도 수학, 물리, 화학 세 과목은 듣고 많게는 국어, 영어 등까지 다 보충수업을 받습니다. 저도 예전에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지내왔는데 비록 세 과목만 들었지만 기력을 꽤 많이 소모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간 후 수학 학원 난이도가 수직 상승해 경시대회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한참을 의논했는데 어머니는 몇 과목을 끊으라고 강력히 권하셨고 저는 학교 진도를 못 따라가 뒤처질까 봐 불안해서 어느 학원도 차마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저는 대법이 가장 중요하며 공부를 너무 과하게 하면 법공부와 연공 시간을 빼앗기게 돼 오히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맘 먹고 수학 학원을 끊은 뒤 주말에 혼자 인터넷으로 예습 영상을 조금씩 보며 참고서와 함께 적당히 문제를 풀었습니다. 제 수학 성적은 반에서 지극히 평범한 수준이라 늘 평균점수 안팎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학기말 구역 연합고사에서 뜻밖에도 수학 과목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아 반에서 최상위권에 들었고 심지어 예전에 저와 같은 수학 학원을 다녔던 우수한 친구들보다 성적이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시험장에서 평소엔 생각지도 못했던 풀이 방식들이 하나하나 난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사존께서 일깨움을 주시고 격려해주신 덕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제 원래 실력만으로는 절대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대법의 신기함과 아름다움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줄곧 길을 이끌어 주시고 제가 오늘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신 사존과 대법에 감사드립니다!

예전의 어린이 대법제자를 일깨우는 것 역시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는 것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3월 중순 어느 날 밤, 아들 집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 꿈을 하나 꿔했습니다. 수업이 끝나 책가방을 챙기다가 문득 아이가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었다는 생각이 나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가보니 아들은 4~5살 때 모습으로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하루 종일 잤는데 또 열이 나는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만져보니 열은 없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깨어 일어나 앉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어쩌다 하루 종일 잔 거니?”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일어나고 싶었는데 어떤 게 못 일어나게 했어요. 엄마가 만지니까 거기서로 도망갔어요.” 아이가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시 방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어? 나는 왜 안 보이지?” 아이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 혼자선 꺾 수 없고 엄마가 깨워야 꺾 수 있어요.” 이 말을 듣고 흠칫 놀라며 잠에서 깬습니다.

아침에 발정념을 마친 후 밤에 꾸 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부님께서 제가 아이를 도와야 한다고 일깨워 주신 것이었습니다. 친척 수련생에게 이 꿈 이야기를 하자 수련생이 말했습니다. “아들이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거네요!”

아들은 80년대생입니다. 1994년 8월, 저는 아들을 데리고 사부님의 하얼빈 설법 교공(敎功) 전수반에 참가했습니다. 당시 아들은 아직 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9일간의 수업에서 줄곧 조용히 사부님의 설법을 들었습니다. 수업 후 아들이 하는 말이나 문제를 보는 관점은 모두 법(法)에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법을 얻은 것이며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가 이미 어린 마음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아들은 대법 수련 속에서 즐겁고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아들은 학업 성적이 비교적 우수했고 취업한 직장도 꽤 좋았습니다. 사회에 나간 후 온갖 악이 넘치는 이 거대한 염색 항아리 속에서도 자신을 깨끗이 지켰고, 선량하며 업무에 충실해 부서의 핵심 인재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철이 일찍 들었고 효심도 깊었습니다. 현재 아들은 이미 중년이 되었습니다.

결혼 문제에서 아들이 상대방에게 요구한 최우선 조건은 대법 수련을 반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전 여자친구와 결혼을 논의할 때 수련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정치 업무를 하던 사람이라 중공 악당이 파룬궁을 잔혹하게 박해하는 수단을 잘 알고 있었기에 듣자마자 펄쩍 뛰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수련을 포기하라고 했지만 아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크게 소

란을 피우며 아들을 신고해 직장을 잃게 만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아들이 “그럼 사직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일자리를 구하겠어”라고 하자, 이 방법이 통하지 않음을 안 그녀는 헤어지자며 보상을 요구하고 건물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녀의 괴롭힘에 엉엉 울면서도 “미안해”라고만 할 뿐 원망하는 말 한마디 없었고 끝내 수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결국 아들의 선량함에 감화돼 극단적인 행동을 멈추고 평온하게 아들과 헤어졌습니다.

아들이 뼈에 사무치는 이 경험을 제게 이야기했을 때 저는 꽤 놀랐습니다. 대법을 이토록 굳게 믿고 있을 줄은 몰랐기에 무척 감탄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교제할 무렵 과거의 교훈을 거울삼아 처음부터 수련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뜻밖에도 며느리는 “개인적인 신앙이니 반대 안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해결된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난 후 꿈을 꿔습니다. 아들이 고층 건물 위에서 한 손으로 난간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이 허공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얼른 아들에게 “너무 위험해!”라고 소리치며 꿈에서 깼습니다. 사부님께서 아들이 위험하다고 일깨워주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아들은 결혼 전 한때 해외에서 일했습니다. 사부님의 신경문이 발표될 때마다 제때 알려주곤 했습니다. 매년 휴가차 집에 오면 저와 함께 법공부, 연공, 발정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집에 거의 오지 않았고, 와서도 며느리에게만 붙어 있었습니다.

신경문이 나왔다고 알려줘도 스스로 보려 하지 않고 거둬 일깨워 줘야 겨우 봤습니다. 몇 년 동안 거의 법공부와 연공을 안 했고, 연공을 너무 오래 안 해 반가부좌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련인이 아니라고 하면 또 싫어했습니다. 저와 대화도 나누지 않고 태도도 나빠져 마치 판사람 같았습니다.

수련인이 법공부와 연공을 안 하고 세 가지 일을 하지 않으면 진정한 수련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법공부를 하지 않아 법의 지도가 없으면 점차 속인으로 떨어져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당시 저는 어르신을 모시느라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전화로 아들에게 그 위험한 꿈 이야기를 하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전화로는 대놓고 말하기가 불편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건강검진에서 간 혈관종이 발견돼 의사가 정밀 검사를 권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반드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며, 나타나서는 안 될 문제라고 말해줬을 뿐입니다.

2026년 설을 앞두고 아이들이 자기 집으로 와서 명절을 쇠자고 초대했습니다. 남편과 의논했습니다. ‘이번에 아들 집에 가면 좀 오래 머물면서 함께 법공부와 연공을 해요. 법공부와 연공을 방해하는 사악한 교란을 제거해 줘서 아들이 다시 대법으로 돌아와 진정으로 착실히 수련하게 도와줘요.’

가서 보니 아들은 살이 더 썩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간만 나면 휴대폰을 들여다봤고 밥을 먹을 때도 휴대폰 한 번 보고 밥 한입 먹을 정도로 휴대폰을 놓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중국 매체의 가짜 정보에 의존해 미국과 트럼프를 사악하다고 여기며 마치 샤오편홍(小粉紅, 맹목적 애국주의에 빠져 공산당을 추종하는 중국 젊은이들) 같았습니다. 도무지 이해

할 수 없어 생체 장기적출과 백신 문제에 관해 되물었더니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제가 “미국인이 잘못된 건 사람의 잘못이지만 중공 악당은 반인류적이고 우주에 반대하는데 같을 수 있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안 했지만 수궁하는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어쩌다 이렇게 변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두어 마디 하면 듣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들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건강검진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간, 폐, 신장 등 장기에 문제가 있고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이 있다는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밀 검사 권고 및 식이요법 요구 사항 등이 한 페이지가 넘었습니다. 마치 노인 환자의 건강검진 보고서 같았습니다. 무척 놀랐습니다. ‘어쩌다 몸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렸을까?!’ 꿈에서 사부님께서 위험하다고 일깨워주신 게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건강검진 보고서 봤다. 네 몸은 지금 단순히 피로한 상태가 아니라 문제가 생긴 거야. 반드시 법공부하고 연공하며 진짜 수련해야 해. 안 그러면 정말 위험해진다.”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 법공부 팀의 한 수련생과 자녀들 수련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자녀들의 미래를 무척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아이와 알고 지내던 예전의 어린이 대법제자들을 위해 자주 발정념을 하며 그들이 대법 수련으로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저도 평소 전화로 아들을 일깨워주는 것 외에 수시로 아들과 다른 예전의 어린이 대법제자들을 위해 발정념을 했고 며느리를 위해서도 발정념을 했습니다.

아들의 현재 상황을 볼 때 휴대폰 중독이 그를 오랫동안 사악

에 세뇌당하게 해 관념이 변이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로 인해 법공부와 연공을 못 하고 진정으로 수련하지 못해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니 휴대폰이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발정념 횟수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이용해 아들을 세뇌시켜 해치고 법공부와 연공을 교란하고 가로막는 모든 사악, 흑수(黑手), 난귀(爛鬼)를 해체하며 그의 진정한 자아가 깨어나길 촉구했습니다. 매일 여러 차례, 꽤 긴 시간 동안 발정념으로 도왔고 다른 어린이 대법제자들과 며느리를 위해서도 발정념을 했습니다.

아들 집에서 발정념을 하던 기간에 꿈 두 개를 연달아 꿴습니다. 하나는 며느리가 찾아와 저와 함께 책을 읽고 싶다고 하는 꿈이었고, 다른 하나는 와와(娃娃, 가명)라는 예전의 어린이 대법제자가 찾아와 도와달라고 하는 꿈이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 발정념을 하니 제가 마음을 다해 돕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파룬파파로 들어오거나 돌아올 수 있게 제가 도와주길 바란다고 생각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들이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보며 발정념의 위력을 절실히 느꼈고 대법 수련을 갈망하는 본성의 일면도 느꼈으며, 계속해서 발정념을 하라는 격려가 됐습니다.

저는 먼저 며느리와 대화하며 이해관계를 분명히 설명하고, 연공인의 문제는 수련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법공부와 연공을 하도록 곁에서 일깨워주길 바란다고 하자 며느리도 동의했습니다. 또한 책을 한번 읽어보며 왜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수련하고 악당이 왜 탄압하는지 알아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설이 지나고 며칠 뒤 아들에게 법공부와 연공을 하자고 했으나

아들은 내켜 하지 않았습니다. 2~3일에 한 번 연공하고 법공부를 했으며 매번 반 강(講)만 공부했습니다. 어느새 보름이 지났는데 ‘전법륜(轉法輪)’을 4강까지밖에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라면 한 달이 지나도 다 읽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마냥 이렇게 옆에 있을 수만은 없었고 집에 돌아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과 다시 진지하게 이야기하며 정법시기가 매우 긴박하고 대법제자의 사명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부님께서 아들을 제게 맡기셨으니 끝까지 책임져야 하며, 모자 관계를 넘어 제 사명이기도 한데 어찌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생각 끝에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편지에 어쩔 수 없이 글을 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생에 모자 관계이고 사부님께서 너를 내게 맡기셨으니, 내가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이끌어 대법 수련의 길로 들어서게 한 이상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사부님의 당부와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

‘네가 지금 이렇게 된 데는 내 책임도 있다. 박해 초기 몇 년간 나는 납치돼 박해받고 감시와 괴롭힘을 당하며 몸과 마음이 고통스러워 널 돌볼 겨를이 없었고 수련도 소홀히 하게 했어. 미안하구나.’

저는 또 말했습니다. ‘어릴 때 법을 얻고 사부님의 설법반에도 참가했으니 얼마나 큰 행운이냐! 넌 사부님과 파룬따파를 굳게 믿었고 명리정(名·利·情-명예, 이익, 정)을 포기할지언정 수련은 포기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대단했다! 명리정을 내려놓는 것은 생사를 내려놓는 것과 같은데, 생사도 내려놓으면서 왜 휴대폰은 내려놓지 못하니? 연공하는 그 작은 고생을 견디지 못하겠니? 휴대폰

중독은 마약 중독과 같단다.’ 저는 마약에 관한 사부님 설법의 대의를 인용해 휴대폰에 빠지는 것의 해로움을 알려주고 수련생들이 겪은 뼈아픈 교훈을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것은 법을 위해서 온 것이며 우리의 진짜 집은 하늘에 있지 애정을 누리려 온 것이 아니다. 이는 사부님의 안배이자 하늘에서 약속한 거야. 수련을 잘하지 못하면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해를 끼치고, 천국 세계 중생들에게 면목이 없으며,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를 저버리게 된다. 진심으로 수련하려 한다면 사부님께서 반드시 너를 도와주실 거다. 엄마는 네가 잘해낼 거라 믿는다. 힘내라!’

아들은 편지를 읽은 후 점차 달라졌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돌고 말수도 늘었으며 밥 먹을 때 휴대폰을 안 보고 연공과 법공부도 더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 말을 다 했고 할 일도 다 했으니 이제 아들 뉘이라 여기며 평소 안부를 묻고 이따금 일깨워주기만 할 뿐 잔소리하면 언짢아 할까 봐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지 며칠 안 돼 아들이 자신을 ‘일깨워’ 달라고 부탁하는 꿈을 꿔했습니다. 집이 아들 집과 멀고 막 돌아온 터라 다시 가기도 그렇고 전화로 말하기도 편치 않았습니다. 어찌할까 고민하다 매일 시간을 정해 각자 집에서 동시에 법공부와 연공을 하기로 하면 수련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아들에게 제 생각을 말하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혼자 연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좋지”라며 아들이 스스로 꾸준히 해나가길 바랐습니다.

며칠 전 예전의 어린이 대법제자를 자녀로 둔 수련생 몇 명과 이 일을 교류했습니다. 자녀들은 지금 모두 40살 안팎이었습니다.

수련생들에게 자녀를 포기하지 말고 돕자고 건의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밖에서 사람을 구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구해야 하며, 이 역시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는 것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대법제자의 집집마다 예전의 어린이 대법제자가 있습니다. 부모를 따라 수련하기도 하고 조부모 등 어른을 따라 수련하기도 한 이 아이들은 이제 거의 다 성인이 됐고 타지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정진하며 착실히 수련하는 이도 많지만 제 아들과 같은 경우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가 우려되며 그들 역시 우리가 구해야 할 중생이자 우리가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는 일의 일부입니다. 본성의 일면은 우리가 손을 내밀어 대법 수련으로 다시 끌어주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에 이 글을 썼습니다. 우리 같은 어른 수련생들이 함께 노력해 예전의 어린이 대법제자들을 일깨워서 대법 수련으로 돌아오게 하고,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고 서약을 실천하며 사부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어컨 배수관 누수가 준 깨우침

글/ 쓰촨성 대법제자

[명혜망] 나는 1999년 ‘7·20’ 이전에 법을 얻은 대법제자로,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의 보살핌 속에 30여 년의 비바람 치는 수련 역정을 걸어왔다. 최근 몇 년간 수련하며 느낀 점을 적어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에 감사드리고자 한다.

에어컨 배수관 누수가 준 깨우침

나는 4층짜리 건물에 살고 있는데 우리집은 3층이다. 1층 주민이 자기 집 뒷마당 바닥에 타일을 깔았는데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아서 위층에서 물이 1층 타일 바닥으로 떨어지면 미끄러워졌고, 사람이 지나가다 넘어져 다칠 수 있었다.

어느 해, 1층에 사는 아주머니가 나를 만나자 불평을 쏟아냈다. “댁 에어컨에서 물이 새는 거 아니에요? 우리집 타일 바닥에 물이 한가득 고였으니 좀 확인해 보세요.” 당시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대답했다. “저희는 엄청 조심하고 있어서 물을 흘려보낼 리가 없어요. 아마 4층 집에서 일부러 그랬을 거예요.” 1층과 4층 두 집 사이에는 오랫동안 쌓인 앙금이 있었고, 4층에서 종종 우리집 에어컨 실외기 위로 오물을 던지거나 어떨 때는 우리가 널어놓은 빨래에 대걸레 뽀 물을 떨어뜨리기도 했기에, 4층에서 일부러 한 짓이라고 의심하며 주관적으로 단정 지었던 것이다.

그 후 아주머니는 나에게 4층 에어컨에서 물이 새는지 살펴보라고 했다. 몇 차례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그 집 에어컨에서 물이 새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물은 어디서 온 것일까? 한참을 궁리해 봐도 원인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우리집 에어컨 배수관을 한번 확인해 보자.’ 베란다에 나가 보니, 과연 우리집 에어컨 배수용 고무관이 오래돼 갈라지면서 1층으로 물이 새고 있었다. 이 일은 나에게 큰 충격을 줬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오랫동안 수련에서 밖을 향해 본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수련에서 사부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안으로 수련하지 않

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 일로 깨달았다. 사부님께서 이런 안배를 이용해 제자를 일깨워 주신 것이었다. 수련인은 반드시 안으로 보고, 안으로 찾고, 안으로 수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때부터 비로소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수련하는 것을 중시하게 됐다. 제자의 수련을 위해 고심하신 사부님께 감사드리고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에 감사드린다.

갈등이 생겨 원인을 찾다

올해 4월 어느 날, 아내(수련생)가 갑자기 까닭 모를 화를 내며 나와 아들을 질책했다. 아내는 우리가 평생 자신에게 상처를 줬다며 분에 못 이겨 늘어놓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끝없이 이야기하며 모두 우리 잘못이라고 했다. 저녁을 먹은 후에도 계속 원망하며, 예전 동료가 자신에게 얼마나 불공평하게 대했는지, 친척들이 당한 박해 등등을 언급하며 가득 쌓인 원망을 화산처럼 터뜨렸다.

처음에는 말로 잘 풀자고, 몸 상하지 않게 진정하라고 권했지만 아내는 전혀 듣지 않았다. 누구든 해명하려 하면 그 사람에게 화를 내며 맞섰다. 우리는 그 기세를 보고 어쩔 수 없이 다 쏟아내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 아내는 밤새도록 끊임없이 분통을 터뜨리다가 기침이 나서 숨을 쉬기 힘들어질 때쯤에야 멈췄다.

이렇게 큰 갈등이 생긴 것에 대해 수련인으로서 법에 비추어 인식해 보니 수련에 누락이 있어 사악에게 빈틈을 타게 된 것이었다. 사악한 요소가 수련인이 아직 없애지 못한 사람마음과 집착을 이용해 우리의 수련 환경을 교란하고 파괴하며 수련생 사이에 간격을 조성한 것이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최근 몇 년간의 수련 상황을 꼼꼼히 되돌아봤다. 아내에게 왜 저렇게 큰 원망이 쌓였을

까? 수련생을 거울삼아 자신을 돌아봤다. 내 문제가 원인이 된 것은 아닐까? 나에게 강렬하게 불평하고 질책하며 남을 가르치려 드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 답은 ‘그렇다’였다.

자세히 찾아보니 확실히 강한 원망심과 수련생을 얕보는 마음이 있었다. 예를 들어 종종 아내 면전에서 오성이 낮고 법리에 밝지 못하며 말이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수련하면서 내 생각이나 관념, 계획과 맞지 않을 때 유독 화를 내고 원망했다. 또한 둘이 함께 진상을 알리러 나갔을 때, 아내가 버스를 제때 타지 못하면 속으로 투덜대며 원망심을 품어 사람 구하는 일에 지장을 주기도 했다. 이런 일이 오랫동안 쌓이다 보니 갈등이 겹겹이 얹혔고, 사소한 일로도 자주 다투었다. 아들도 종종 자기 엄마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핀잔을 줬다. 이렇게 우리는 수련생의 공간장에 수많은 부패된 물질을 던져 수련생의 수련에 장애를 만들었다. 시간이 흐르며 위와 같은 상태가 벌어졌고, 가정 분위기가 긴장되고 갈등이 끊이지 않아 우리가 대법 일을 하는 데 심각하게 교란을 줬다. 잘못된 수련생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이 자리를 빌려 사부님께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아내에게도 사과한다. 나는 남을 원망하는 이 완고한 마음을 원치 않는다. 그것은 본래 내가 아닌데 왜 없애지 않겠는가.

수련생을 선하게 대하고 집착을 없애며 함께 정진하다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아들이 갑자기 나에게 말했다.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정말 불쌍해요. 제가 엄마한테 대들지 말았어야 했고 밀치는 건 더더욱 안 되는 거였어요. 앞으로는 엄마를 존경하고 선하게 대할게요.” 아들의 이 말을 듣고 나는 몸이 떨리며 눈물이 날 뻔했다. 평소 엄마에게 좋은 말로 대하

지 않던 아들이 오늘 이런 말을 하니 더없이 흐뭇했다. 즉시 이것이 사부님께서 아들의 입을 빌려 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함을 일깨워 주신 것임을 깨달았다.

법 속에서 나는 끊임없이 깨달았다. 아내가 그때 보였던 법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언행은 그녀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형성된 관념, 사상업력, 그리고 배후의 사악한 요소가 벌인 짓이기에, 결코 수련생에게 억지로 덧씌워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다.

법리가 분명해진 뒤, 나는 원망하는 생각들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다. 그런 마음이 떠오르기만 하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멀어버리고 해체했다. 동시에 마음속으로 아내를 이해할 수 있게 됐음을 뚜렷이 느꼈다. 겉으로만 화합하고 속으로는 어긋나던 예전의 느낌이 사라졌고, 우리 사이의 간격이 없어지니 마음이 매우 유쾌해졌다. 사부님께서 우리 둘 사이를 가로막던 물질을 없애주신 것이다. 지금 우리 부부가 나가서 얼굴을 마주하고 진상을 알려 중생을 구할 때 호흡이 갈수록 잘 맞고 효과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

아울러 나는 진심으로 아내에게 잘 대하고 여러 방면에서 신경 쓰며 배려할 수 있게 됐고, 부족한 점도 선의로 짚어줄 수 있게 됐다. 수련생이 시련을 겪을 때 그를 배려하고 제때 정념을 더해 주며, 사부님의 보살핌 아래 고비를 넘기고 사부님의 정법 노정을 따라갈 수 있다고 믿게 됐다. 예전처럼 확신이 부족하거나 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심지어 포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수련생의 일이 곧 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법리가 분명해지자 아내의 수많은 장점도 점차 내 눈에 들어왔다. 1999년 ‘7·20’ 장쩌민이 파룬궁을 박해한 이래, 아내는 세상 사람들에게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린 수련생 중 한

명이었다. 내 기억에, 아내는 여러 차례 한밤중에 일어나 캄캄한 밤 혼자 밖으로 나가 길가 전신주에 진상 스티커를 붙이곤 했다. 연약한 여자로서 그런 용기를 낸 것은 실로 훌륭하고 귀한 일이었다. 얼마 전 아내가 우리 앞에서 보였던 행동들은 그저 내 심성을 제고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으니, 오히려 감사해야 마땅했다.

끊임없이 안으로 자신을 찾는 과정에서 나는 자신의 근본적인 집착을 발견했다. 바로 안일을 추구하는 마음, 안일한 수련 환경을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이는 자아를 위하는 이기심이었다. 이것이 존재하다 보니, 누가 내가 세운 계획을 틀어놓으면 기분이 언짢았고, 내 관념과 맞지 않으면 원망하고 번뇌했으며, 내 수련에 영향을 주고 안배를 흐뜨리면 짜증이 났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뒤로 물러섰다. 예를 들어, 예전에 직접 카드를 디자인하고 싶어 설명서대로 며칠 배우다가 너무 번거롭다며 포기했다. 또 컴퓨터 시스템을 설치할 때도 내 지식과 경험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었지만, 번거로움이 싫어 천지행 포럼에 들어가 배우려 하지 않았다. 특히 아내가 심성 고비를 넘을 때면 내 수련에 지장을 준다고 여겨 유독 언짢아하며 수련할 줄 모른다고 자주 질책했다.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나는 시간이 촉박함을 깊이 느낀다. 앞으로 수련에서 끊임없이 자아를 내려놓고, 아직 없애지 못한 사람마음과 집착을 버리며, 아내와 서로 돕고 의지하며 함께 정진할 것이다. 사부님의 진수제자가 돼 역사적인 큰 서약을 지켜 사부님의 크나큰 은혜에 보답할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아내의 헌신적인 노력에 특별히 감사하며, 제자의 수련 제고를 위해 세심하게 안배해 주신 사부님께 깊이 감사 드린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착실한 수련 속에서 마음이 비워지는 아름다움을 깨닫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공(空)’은 겉보기엔 그저 한 글자지만 착실한 수련 속에서 진정으로 사람 마음과 집착을 발견하고 이를 제거할 수 있다면 ‘공’의 함의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교사였던 저는 갑자기 수업이 정지됐습니다. 교장은 무슨 이유인지 말해주지도 않고 그저 좀 쉬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무슨 이유인지 알고 있었기에 마음속으로 저도 모르게 괴로웠고 알 수 없는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이 상실감 속에는 많은 집착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것들을 모두 찾아내 제거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총무처로 발령 났습니다.

처음에 총무처 사무실에 갔을 때 늘 다른 사람을 피하고 싶었고 남들이 알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집착심이 두려워하는 것이진정한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며 숨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남들이 알면 아는 것이고 저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야 했고 저의 행동으로 인해 모두가 대법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해 일이 중생 구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 불리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전부 배제해 제 머릿속에서 생겨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음 날 동료 A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저를 보고는 깜짝 놀

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여기 있어요? 여기서 근무해요?” 저는 아주 평온하게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별다른 말 없이 놀란 표정으로 가버렸는데 마치 의도적으로 저의 사람 마음을 겨냥해 온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점심을 먹을 때 동료 A가 제 맞은편에 앉더니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지금 총무처에서 일해요?” 저는 평온하게 “네”라고 대답했고 그녀는 이어서 “이제 수업 안 해요?”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다시 평온하게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밥만 먹었고 마음 속에는 사심과 잡념이 조금도 없었으며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아주 평온했습니다. 마치 그녀가 하는 말이 저와 아무 상관이 없는 듯했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있던 동료 몇 명도 아무 말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밥만 먹었고 저는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떴습니다.

이후 문득 이 일을 생각하고 나서야 당시 자신이 동료 A의 질문에 조금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문을 두드리고 의문을 제기한 것은 제 마음이 움직이는지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집착심을 내려놓았기에 저에게 아무런 작용을 하지 못했는데 그럼 또 무엇을 시험하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아무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부님께서는 제가 수업 정지를 당한 사건을 이용해 저에게 숨겨진 집착과 사람 마음을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제거하게 해 저를 제고하게 하셨습니다. 교장이 저에게 수업을 못 하게 한 것은 제가 마음이 움직이는지 보려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보고 수군거린 것도 제가 마음이 움직이는지 보려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업을 할 수 없어 직급 심사를 못 받게 한 것도 제가 마음이 움직이는지 보려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연례 평가에서 불합격하게 한 것도 제가 마음이 움직이는지 보려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수련은 마음을 닦는 것이지 저에게 진정으로 물질적 이익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심성이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의 지도 아래 진정으로 제고돼 올라온 후에는 자연스럽게 물질적 이익에 대한 추구를 내려놓을 수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수련의 길입니다.

구세력은 수업 정지를 이용해 저를 박해했지만 사부님께서서는 구세력의 배치를 이용해 제가 진정으로 좋지 않은 것인 집착, 사람 마음, 관념 등을 잃게 하시고 얻게 하신 것은 우주 특성 ‘진선인(眞·善·忍)’에 대한 동화이자 경지의 승화였습니다. 이는 물질적 이익과 맞바꿀 수 없는 것이며 가치로 가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속인 사회에서 당당하게 수련하도록 배치하신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물질적 이익을 잃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이익 속에서 그것을 담담하고 가볍게 보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글을 다 쓴 그날 저녁, 제가 신통가지법(神通加持法)을 연공할 때 내면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고 아주 흥가분하고 무척 편안했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고 대단히 아름다웠습니다.

자아를 내려놓고 남을 위하는 마음을 닦아낸 체득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나와 남편(수련생)은 농촌 호적으로 퇴직연금이 없어 도시에서 돈을 벌고 있다.

나는 올해 64세이고 남편은 곧 70세가 되는 사람이다. 가끔 일을 많이 하면 남편이 다리가 아프다고 한다(남편은 대법을 늦게 얻었다). 나는 남편과 상의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게 하고 내가 나가서 가정부 일을 구하기로 했다. 내 체력에도 맞고 수련에도 지장을 주지 않으며, 버는 돈도 우리 생활에 충분할 것 같았다. 이렇게 하면 남편이 집에서 법공부를 더 많이 하고 세 가지 일을 잘하며 착실히 수련할 수 있을 것이다. 상의를 마친 뒤 나는 타지로 떠났다.

가정부 일을 한 지 반달쯤 지났을 때 남편이 마음을 바꿨다.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고 다시 일을 해야겠다고 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나가서 가정부 일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내가 매사에 극단적으로 치우치기 좋아한다고 말했다. 친척과 친구들도 다들 나에게 남편을 혼자 집에 두고 가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나이에 두 사람이 떨어져 지내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런 말을 듣고 나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도 수련하는 사람인가? 말을 이랬다저랬다 하고 거짓말까지 하다니’라고 생각했다. 나는 우리가 함께 산 40여 년 동안 그가 나에게 불공평하게 대했던 일들을 다 떠올렸고, 줄곧 그의 거짓말 속에서 살아온 것 같아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억울함과 화가 다 치밀어 올랐다. 심란해져서 법공부와 연공을 할 때 전혀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수련하는 사람에게는 우연한 일이 없으니 안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았지만, 그 일 자체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했다.

나는 눈물을 머금고 사부님께 말씀드렸다. ‘사부님, 저도 안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잘못된 게 없잖아요! 출발점은 그 사람을 위한 거였어요!’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이 정에서 뛰쳐나왔다면 누구도 당신을 움직이지 못하며, 속인의 마음은 당신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것을 대체하는 것은 慈悲(츠뻬이)이며, 더욱 고상한 것이다.”(전법륜)

나는 반복해서 외웠고, 외우다 보니 나의 집착을 찾았다. 바로 남편에 대한 정과 자아에 대한 집착이었다.

나는 늘 남편이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고 내가 더 건강하다고 생각해 집 안팎의 일을 더 많이 해왔다. 게다가 내 자신이 악당의 주입과 강압, 탄압을 받아 이런 좋지 않은 물질을 줄곧 철저히 제거하지 못했고, 습관이 돼버려 스스로도 알아채지 못했다. 남편은 수련하기 전에 성격이 아주 좋아서 거의 순응하는 편이었고 한 번도 나에게 대들지 않았다. 하지만 한번 마음먹은 일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가 거짓말을 한다고 여겼다. 이번에 내가 남편에게 집에서 법공부를 잘하라고 하고 가정부 일을 하러 나가겠다고 제안했을 때, 아마 진심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나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동의하는 척했고 그래서 내가 떠난 뒤 마음을 바꾼 것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자 단번에 깨달았다. 나의 강한 자아 때문에 그가 어쩔 수 없이 내게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었다. 또 남편에 대한 정이 너무 무거웠다. 남편이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관념이 아닌가? 그 역시 수련하는 사람이고 사부님께서 관장하고 계시며 수련의 길은 사부님께서 안내하신 것인데, 언제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마음이 홀가분해졌고 마음속 깊은 곳

에서 한 가지 일념을 보냈다. ‘내 공간장 속의 모든 좋지 않은 사상 생각과 관념을 철저히 제거하겠다. 대법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사상 생각은 내가 아니다. 나의 생명은 ‘진선인(眞·善·忍)’으로 구성된 것이다. 사부님, 제자에게 정념을 가지(加持)해 주십시오!’ 순간 하늘이 맑아지고 몸이 투명해지며 마음이 단번에 가벼워졌고, 정과 자아를 내려놓은 기쁨을 느꼈다.

가정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남을 위하는 마음을 닦아낸다

마침 가정부 일을 구하려던 참에 친정 언니가 전화를 걸어와 가정부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어디를 가든 수련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친정 마을로 가서 가정부 일을 하는 것도 아마 내가 구해야 할 중생이 있어서일 거라고 생각했다.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니 그렇다면 순리에 따르기로 했다.

그 가정부 일은 두 노인에게 밥을 해드리고 닭, 오리, 거위, 개에게 먹이를 주며 청소하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78세로 당뇨를 앓고 있었고 다리를 다쳐 걷기 불편해 방 안에서 대소변을 봐야 했다. 할아버지는 85세로 맥관염을 앓고 있어 걷는 것이 그리 편치 않았고 때로는 그 역시 방 안에서 대소변을 봐야 했다. 당시 딸이 말한 급여는 4600위안이었는데, 만약 아버지가 방 안에서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으면 600위안을 빼고 4000위안을 주겠다고 했다.

농촌 노인들은 퇴직연금이 없어 평소 여러 해 절약해 모은 돈에 의지해 살아가며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어 하지 않았기에 생활이 매우 검소했다. 내가 가기 전에 이미 세 명의 가정부가 떠났는데 가장 오래 일한 시간이 20일이었다. 다들 노인들의 일이 많고 마당 가득한 닭, 오리, 거위 배설물이 너무 더럽다고 싫어했다. 가정부를 구하지 못했을 때는 근처에 사는 딸이 와서 밥을 해

주곤 했는데, 그 집에서 밥을 먹지도 않았다.

이웃이 내게 말했다. “그 집 일은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나는 수련하는 사람이고 대법의 지도가 있으니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들을 내 가족처럼 대하며 매사에 그들을 위해 생각했고 작은 일부터 시작해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그들을 위해 아꼈다. 달이 차서 월급을 받을 때가 되었을 때 내가 먼저 말했다. “이번 달에는 방 안에서 화장실을 몇 번 안 가셨으니 4000위안만 주셔도 됩니다.” 딸은 그러면 너무 미안하다며 원래 4600위안으로 이야기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 600위안은 딸 셋이 보탠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요. 우리 사부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할 때 매사에 남을 위해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다들 품을 팔아 돈 버는데 쉽지 않잖아요.”

노인이 먹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든 만들었고 매 끼니마다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물었으며,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인내심을 갖고 다독여 주었다. 이웃이 놀러 와서 방이 깨끗하게 정돈된 것을 보고 말하자 노인은 이번엔 참 좋은 가정부를 구했다며 밥도 맛있게 한다고 칭찬했다. 이전 가정부들은 젖은 장작과 옥수숫대를 태우지 않았고 걸레가 더러워지면 빨지 않고 그냥 버렸는데, 나는 젖은 장작과 옥수숫대까지 다 태우고 물건을 절대 낭비하지 않아 아주 꼼꼼하다고 했다. 자신보다 더 절약할 줄 알고 더럽다고 꺼리지도 않는다고 했다.

노인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된 것은, 이전 세 명의 가정부는 모두 약봉지를 챙겨서 왔는데 나는 가져오지 않았다는 점이였다. 몸이 건강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며, 처음 왔을 때부터 온몸에 바른 기운이 느껴졌다고 했다. 장롱 안에 넣어둔 돈도 내가 외출할 때

잠그지 않을 정도로 외부 사람이 왔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고, 가정부 소관이 아닌 일도 다 했으며 산에 올라가 거위에게 먹일 풀을 뜯어오는 등 마치 자기 집처럼 일한다고 했다. 할머니는 “우리 집 네 딸 중에 한 명이라도 자네 같다면 가정부를 쓸 필요도 없을 텐데!”라고 말했다. 나는 “제가 파룬궁을 수련하지 않았다면 저도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희 사부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에게든 가족을 대하듯 하라고 가르치셨어요”라고 대답했다.

남편은 두 달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했다. 나는 알겠다고 하며 미리 다른 사람을 구하라고 말씀드렸다. 할머니도 밖에 나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다시 사람을 구하면 급여를 3600위안만 주기로 했는데, 그 사람은 월말이 되자 또 사정이 생겨 오지 못한다고 했다. 노인은 나와 상의했다. “한 달만 더 해줄 수 있겠나? 만약 해준다면 4000위안을 줘세.” 할머니는 내가 일하면 마음이 놓인다며 차라리 돈을 더 쓰더라도 그러고 싶다고 했다.

나는 남편과 상의해 한 달을 더 일하기로 했고 남편도 동의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제가 더 일할게요. 하지만 돈은 더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달이 차서 월급을 받을 때 나는 그 400위안은 더 받지 않겠다고 하며 말했다. “저는 아직 젊어서 돈을 벌 수 있지만 두 분은 이제 돈을 벌 수 없으시잖아요.” 할머니는 말했다. “이 돈은 자네가 무슨 말을 해도 받아야 해. 안 받으면 내 마음이 편치 않아. 자네가 한 일은 그만한 값어치가 있어. 나는 이제 돈을 벌 수 없는 몸이지만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이야. 자네는 아직 젊으니 나이 들어서 쓸 돈을 좀 모아둬야지.” 우리 둘 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그럼 제가 양고기탕이라도 대접할게요”라며 양고기를 사다가 노인들께 탕을 끓여드렸다.

떠날 때 나는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찰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호신부(護身符)를 꺼내 두 노인에게 주며 말했다. “시간 날 때 이 아홉 글자를 자주 외우세요. 반드시 아름다운 미래가 있을 거예요.” 노인은 “그래, 이건 내가 받아야겠네”라고 말했다.

진상을 전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닦다

내가 가정부로 일한 곳은 어릴 적 고향이라 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본 노인들도 있었고 나에 대한 인상도 아주 좋았다. 나는 진상을 전하면 분명 잘 들어주실 거라 생각했지만 몇 분에게 이야기해 보니 다들 듣지 않으셨다. 오히려 내가 엉뚱한 것을 믿고 바보가 되었다며 훈계하려 했다.

특히 80대가 넘어 내가 둘째 아저씨라 부르는 노인 한 분은 매우 고집스럽게 굴며 자기는 다 안다고 하셨다. 내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집에 돌아온 나는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말씀드렸다. ‘사부님, 저는 진심으로 그분들을 위해 그러는 건데 왜 듣지 않을까요.’ 머릿속에 한 구절이 떠올랐다. ‘고결한 척 오만하다.’ 나는 이것이 분명 사부님의 일깨움이라 생각했지만 나는 고결하고 오만하지 않다고 여겼다. 그저 학력도 초등학교인 가정주부인데 어떻게 고결하고 오만할 수 있겠는가? 고결하고 오만하고 싶어도 그럴 자격조차 없지 않은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의 일사일념을 꼼꼼히 찾아보았다. 둘째 아저씨라 부르는 그 노인의 태도가 떠올랐다. 그가 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마음속으로 ‘정말 우물 안 개구리처럼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너무 자기 확신에 차 있어’라고 생각했었다. 이것이야말로

남을 얕보는 질투심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고결한 척 오만함이 아닌가! 또한 내 인식만 고수하고 남에게 지시하기 좋아하며, 내가 남보다 많이 안다고 여기는 등 여러 사람 마음이 있음도 찾았다. 마음이 단번에 확 트였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일깨움에 감사드린다! 세상 사람들의 태도로 나로 하여금 그 좋지 않은 사상관념을 알게 하고 닦아 없애게 해준 것에 감사드린다.

내가 다시 그들을 찾아가 진상을 전했을 때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내 말을 잘 들어줄 뿐만 아니라 다들 고맙다고 말했고, 둘째 아저씨라 부르던 그분도 차분히 내 말을 들어주셨다. 또한 내가 자신을 위해 그러는 것임을 안다고 하셨다. 내가 떠날 때 그분은 한참을 배웅해주셨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자신을 잊지 않고 생각해줘서 고맙다고 거듭 말씀하셨다.

맺음말

가정부로 일한 석 달 동안 나는 매사에 남을 위해 생각하며 남을 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평온하고 상서로운지, 대법의 은혜 속에 흠뻑 잠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지 몸소 체득했다. 사존의 크나큰 은혜와 자비로운 제도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문제를 토론해 보고자 한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창저우 구치소, 여성 알몸 ‘신체검사’ 강요…매일 두 차례 모욕적 절차’를 보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公安 시스템이 명백히 법을 위반했으므로, 피해자나 상황을 아는 사람은 익명으

로 그들을 고발할 수 있다. 그들의 악행을 기율검사위원회(기검위), 감찰 및 기타 관련 정부 기관에 고발하거나, 현지 및 상급 기율검사위원회에 고발하면 된다. 악인들도 동료 관리들이 이런 악행을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내 직장 동료의 자녀가 결혼식을 올릴 때 우리가 축의금 수납과 장부 기록을 맡은 적이 있다. 누군가 기검위에 결혼식이 기준을 초과했다고 고발했고, 우리는 장부를 기록했다는 이유로 기검위에 몇 차례 불러 가 조사를 받았다. 이 일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상황을 아는 사람이라면 공안이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어기는 행위, 특히 공안이 함부로 가택수색을 하고 개인 물품과 재물을 강탈한 행위를 익명으로 고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발할 때 피해자가 파룬궁수련생이라는 신분을 반드시 밝힐 필요는 없다.

공안이 개인 물품과 재물을 강탈하고도 몰수 통지서나 합리적인 몰수 사유가 없다면,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 착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고발하는 것이다. 어떤 공안국장은 부하들이 개인 물품과 재물을 챙긴 사실조차 모를 수 있다. 이러한 경제 문제는 기검위가 가장 주시하는 사안이므로, 만약 조사가 시작되면 공안국장 역시 다른 일까지 연루될까 봐 두려워하게 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점도 고발할 수 있다.

1. 법 집행 시 경찰복을 입지 않고 사건 사유와 법적 근거를 알리지 않았으며 사건 처리 절차가 미비한 점.
2. 불법적인 가택수색 시 많은 개인용품(현금과 금은보석 등)을 압수해 간 점.
3. 구치소에서 수련생을 고문하고 모욕한 점 등.

공검법(공안·검찰·법원)이 기검위의 조사를 받으면 승진 평가 지표는 물론 개인과 기관 모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만약 기검위가 조사에 나서면 그들은 매우 두려워하며 악행을 자제할 것이다.

현지 및 타지역 수련생, 박해를 받은 수련생이나 받지 않은 수련생 모두 고발할 수 있으며, 일반 시민의 신분으로 고발해도 되고 익명으로 해도 된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타지역 수련생이 다른 지역 공검법의 위법 행위를 고발할 때는 편지를 이용해 박해받은 수련생의 거주지 관할 상급 기검위에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2. 현지 수련생이 그들을 고발할 때는 상급 기검위에 편지를 보낼 수 있다. 또는 편지를 지퍼백에 넣어 기검위 근처의 나무나 울타리에 걸어두면 감시 카메라를 쉽게 피할 수 있다.

3. 만약 현(縣)급 수련생이 박해를 당했다면 성(省)이나 시(市)에 있는 수련생이 고발장 작성을 도와 기검위 근처의 나무나 울타리에 놓아둘 수 있는데,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을 조사하면 효과가 훨씬 좋다.

이 방법이 타당한지 모르겠으니 수련생들이 피드백을 주고 시도해 보길 바란다.

중국 농민: 세계 공장의 대가, 중공의 무료 자산

글/ 소가(蕭歌)

[명혜망] 1인 미디어에서 많은 추종자를 거느린 주장 중 하나는 지금 중국이 ‘역사상 최고의 태평성대’이며,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됐고, 산업이 발달했으며, 고속철도가 편리하고, 과학기술이 도약했다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말해 확실히 그렇다. 중국 도시에는 차가 붐비고 고층 건물이 숲을 이루며 서구 국가와 거의 차이가 없다. 심지어 서구는 중국의 저렴하고 다양한 공산품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의 화려함과 현대화가 하층민 중국인들의 생활 상태와 같은 것은 아니며, 이 둘 사이에는 오랫동안 무시돼 온 거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중국인에게 ‘농민공’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린다. 수십 년간의 대규모 산업화 과정에서 수억 명의 농민이 도시로 진출해 일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졌다. 사람들은 왜 다른 현대 국가에는 ‘농민공’이라는 신분이 없는지, 왜 같은 산업 노동자이자 건설자인데 중국의 ‘농민공’만 오랫동안 도시의 사회보장과 정규 퇴직 복지에서 배제돼 왔는지 거의 반성하지 않는다.

서구의 식자들은 중국의 지난 30년 경제 기적이 본질적으로 “(중공) 체제가 국민에 대한 속박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사유재산권을 허용하고 시장 메커니즘(WTO 가입)을 도입하며 수억 명의 저렴하고 근면한 ‘농민공’이라는 노동력 보너스를 방출했기에 생산력이 폭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공

산당(중공)은 선전 속에서 중국 인민이 땀 흘려 이룩한 부의 축적을 오직 ‘당의 영도하’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태평성대’로 포장한다. 중공은 스스로를 중국 인민의 위대한 구원자이자 대표라고 자처한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식자들은 “중공은 중국이 아니다”라는 점을 갈수록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

‘세계 공장’은 누가 유지하고 있는가

중공국은 ‘세계 공장’으로 불리며, 그 주인공은 중국 농민이다. 중국 농민은 당에 의해 ‘농민공’으로 불리는데, ‘농민공’은 중공이 만들어낸 것이다. 중국 전역의 크고 작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진정한 의미의 ‘노동자’는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노동자는 정상적인 복지와 퇴직 보장을 받지만, 중국에서 정상적인 복지와 퇴직 보장을 받는 ‘노동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노동자는 누구인가? 바로 중국 농민이다. 그들은 ‘하청 노동자’, ‘임시직’으로 불리며 정상적인 복지와 퇴직 보장을 받지 못한다. 중공 공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농민공 총수는 3억 115만 명에 달하며, 그중 60세 이상 노인이 1억 6,800만 명에 이른다. 이는 잔인한 수치다. 왜 그럴까? 자금 사용의 우선순위 문제이기 때문이다.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농민과 도시 주민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단지 직종이 다를 뿐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예를 들어 대만 농민은 도시 주민과 마찬가지로 은퇴 후 매월 8110대만달러(약 35만 원)의 연금을 받지만, 중국의 은퇴 농민은 어떨까? 매월 163위안(약 3만 5000원)으로 대만의 10% 정도에 불과해 기본 생활조차 유지하기 턱없이 부족하다.

개인이 큰 질병이나 재난에 부딪혔을 때, 가장 기본적인 인도주의에서 출발해 평안한 사회라면 마땅히 사회적 약자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명과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암에 걸린 노인의 경우,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국가라도 노인이 암 치료 때문에 가산을 탕진하지 않도록 하는 공공 대응책이 마련돼 있다.

대만의 경우를 예로 들면, 농민이 암 등 30가지 ‘중증 상병’에 걸리면 의료비를 전액 면제받는다. 일반인도 입원 시 ‘개인 부담 상한선’이 있어 개인의 연간 누적 입원 자부담금이 약 6.5만~7만 대만달러(약 300만 원)를 초과하면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환자가 중병으로 인해 가산을 모두 탕진하고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하지만 중공이 자칭하는 ‘역사상 최고의 태평성대’에서 중국 농민이 암에 걸리면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는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의료보험 목록 내’ 일부일 뿐이며, ‘의료보험 목록’ 외의 ‘비급여 약’은 상한선이 없어 쓴 만큼 돈을 내야 하고 환급도 불가능하다.

즉, 대만의 건강보험은 중병에 대해 중증 상병 면제와 연간 자부담 상한선을 두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비급여 약이라는 심연이 무수한 일반 가정을 질병으로 인한 빈곤과 거액의 빚더미로 몰아넣는다. 많은 중국 농민은 천문학적인 청구서 앞에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치료를 포기하는 길을 선택한다.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상: ‘가장 믿을 수 있는 세 아들’

중국의 인구가 많아서 돈이 부족한 것인가?

중공국은 이미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연간 경제 수입이 20조 위안에 달한다. 하지만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에서 체제 유지

비, 국방 예산, 해외 ‘일대일로’ 및 각종 대외 원조에 투입되는 자금은 걸핏하면 수조 위안이나 수백억 달러에 이른다. 만약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배려에 기초해 중앙 재정이 전액 부담하여 핵심 농촌 인구의 중병 입원 자부담 부분을 면제해 준다면, 1인당 연간 1천 위안의 ‘중병 비급여 특별 지원금’을 추가한다고 계산해도 2억 명의 핵심 농업 인구를 위해 연간 2천 억 위안만 있으면 된다. 이는 총수입 20조 위안의 1%에 불과하다.

거대한 프로젝트 중 어느 하나에서 조금만 ‘짜내도’ 이 돈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1%의 제도적 온정은 지금도 중국에서 여전히 당연하다는 듯이 결여돼 있다.

우한대학 사회학과 강사 류옌우(劉燕舞)가 6년에 걸쳐 후베이, 산둥, 장쑤 등 11개 성을 심층 답사한 후 발표한 ‘농촌 노인 자살에 대한 사회학 연구’에 따르면, 중국 농촌 노인의 자살 현상은 “이미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일부 농촌 지역의 자살률은 엄청나게 높아 “최소 30%라는 것도 보수적인 추정”이라고 한다. 이 엄혹한 사회학 현장 조사 데이터는 의도적으로 미화한 시골의 전원적인 상상을 깨뜨리고, 고령화 물결 속에서 중국 농촌의 제도적 부양 상실이라는 극단적인 곤경을 직시하게 한다.

조사 과정에서 어느 농촌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떠도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 지역 노인들에게는 모두 세 아들이 있다. 약 아들(농약 마시기), 밧줄 아들(목매기), 물 아들(물에 뛰어들기)이다. 그들의 눈에는 이 세 아들이 가장 믿음직스럽다.”

후베이의 한 네티즌은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다. “우리 마을의 대부분 노인은 농약을 마시고 떠났다.” “우리 할머니, 사촌 동

생의 할아버지, 앞집 할머니, 대각선 앞집 할머니, 이웃집 할아버지... 많은 분이 그렇게 가셨다.” 살길이 막막했기 때문이다. 중국 농민들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차분하게 자살로 향하는 것을 학계에서는 ‘참혹하다’고 묘사한다.

왜 정부 수중에 돈이 많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수억 명에 달하는 중국 농민의 기본 생존과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가? 1949년 중공이 정권을 찬탈한 이래, 중국 농민은 1950년대부터 줄곧 2등 시민으로 전락했고 지금까지 그래왔다. ‘지주를 타도하고 땅을 나누자’라는 구호는 농민을 이용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수단이자 선전에 불과했다.

공산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동물이자 노동 도구이며 목숨은 개미와 같다. 어떤 이들은 지금 ‘빈곤 퇴치’가 있지 않냐고 묻는다. 있긴 하지만, 그것은 노(老)·소(少)·변(邊)·궁(窮) 지역(‘혁명 근거지’ 등을 지칭)에 국한되며 엄격히 구분된다. 그러나 정작 빈곤선 밖에 있다고 규정된 정상적인 농촌(후베이, 허난, 산둥 등)은 홀로 남은 노인들의 생존 조건 부재, 전통적인 효도의 붕괴, 중병에 대한 공공 안전망 부재 등에 직면해 있다. 이런 문제들은 매우 일상화돼 종종 ‘가벼운’ 사회 문제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농촌 노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요인이다. 그럼에도 중공은 역사적으로 남겨진 문제, 도농 이원 체제 등의 핑계를 대며 오랫동안 농촌 노인들의 생명을 외면해 왔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파시스트 정권조차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자국 농민을 ‘피와 흙’의 정권 기반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자본의 착취를 피할 수 있는 토지 보장과 기본 사회 복지 마지노선을 제공했다. 그러나 공산당에게 인도주의는 철저히 버림받았다.

그들의 살길은 왜 박탈당했는가

억대에 달하는 하층민들이 ‘병이 들어도 치료받지 못하고, 늙어서도 부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심지어 벼랑 끝으로 몰렸을 때, 만약 국가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으면서도 실생활에서 많은 이들에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전통 수련법이 나타났다면, 어째서 관용과 격려를 받기는커녕 수십 년에 걸친 가혹한 탄압을 불러왔을까?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단순한 의료나 경제의 논리를 벗어나 사회 통제, 정치 체제, 이데올로기라는 심층 구조에서 바라봐야 한다.

고도로 집중화된 체제하에서 당국은 정치, 경제, 여론 자원을 장악할 뿐만 아니라 민중의 정신세계와 조직 형태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력을 구축하려 한다.

중국에서 일부 농촌 노인들은 국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자발적으로 연공하여 건강을 되찾았지만, 오히려 중공의 잔혹한 탄압을 받았다. 예를 들어, 지린성의 왕야친(王亚芹)은 2004년에 좌측 폐에 $3.3 \times 3.5\text{cm}$ 크기의 종양이 생겨 5차례 화학요법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고 암세포가 이미 전이됐다. 농촌의 언니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우연히 이웃에게서 파룬궁 수련에 대해 듣게 됐고,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수련을 시작했다. 불과 일주일 만에 그녀의 몸은 기적적으로 호전됐다. 땅을 딛고 걸을 수 있게 됐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았다. 한 달 후, 암이 완전히 사라졌다. 마을 사람 모두가 그녀의 회복을 직접 목격했다. 하지만 한 달 후, 중공 경찰은 왕야친을 납치하고 수련을 금지했다. 왕야친은 신앙을 견지하며 경찰에게 진상을 알렸다. 2020년 그녀는 또다시 중공에 납치돼 부당하게 5년 반형을 선고받았다.

중공 통치하에서 ‘진선인(眞·善·忍)’을 따르며 자신을 이롭게 하고 가정과 사회에 유익한 파룬궁수련자들은 오히려 27년간 잔혹한 박해를 받았으며, 박해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명혜망 통계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에 파악된 바에 의하면, 중공에 의해 부당하게 형을 선고받은 중국 파룬궁수련자는 최소 279명이며 그중 142명이 60세 이상의 노년 파룬궁수련자로 51%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60~69세가 77명, 70~79세가 50명, 80~89세가 14명, 90세 이상이 1명이었다.

명혜망 보도에서는 매일 수많은 수련자가 연공을 통해 심신의 건강을 얻은 사례를 볼 수 있다. 1999년 1월 1일부터 27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일 이렇다. 명혜망 검색창에 ‘파룬궁수련자 병 호전’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73,989’건이 검색되며, 중복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유효한 실제 사례가 매우 많다. 중공이 부양하기 꺼리는 노인들, 중병을 감당해 줄 의료 제도도 없고 양로금도 없는 상황에서 벼랑 끝에 몰려 살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좋은 일이 아닌가? 왜 굳이 박해해야 하는가?

한편으로는 하층민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 생존 보장에 대한 공공 재정의 장기적 부재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존의 곤경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민간의 자발적인 구제 수단에 대한 가혹한 차단이 있다. 이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결국 벼랑 끝에 몰린 많은 하층민, 특히 중국 농민을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었다. 자기 집의 기초를 파먹는 국가는 비록 ‘태평성대’라 불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공산 특권층과 기회주의자들의 태평성대일 뿐, 결코 중국 인민(특히 중국 수억 명의 농민)의 태평성대는 아니다.



▲ 7월 25일, 타이완 파룬궁수련자들이 '7·20' 박해 반대 27주년 퍼레이드를 개최하여 타이베이 시청 광장에서 출발해 스푸로, 쑹가오로, 쑹런로, 쑹서우로를 따라 행진하며 도시의 여러 주요 랜드마크를 거쳤다. 당일 저녁, 타이베이시 정부 시민광장에서 중국 공산당의 박해로 숨진 중국 대법제자를 숙연하게 애도했다. 정계 인사, 의료계 전문가, 변호사, 학자들이 잇따라 발언하며 중공의 파룬궁수련자 박해라는 반인류 범죄를 규탄했고, '초국가적 탄압 반대' 등 입법을 추진해 공동으로 박해를 종식할 것을 촉구했다.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359명

■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6504만 2966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